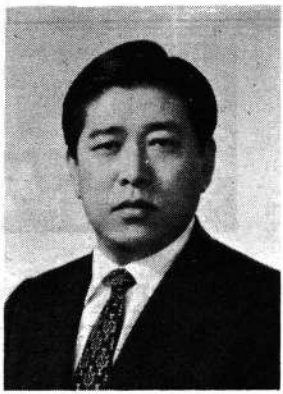


送年辭

內實에 跆拳道

1973年은「跆拳道의 해」였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우리 손으로 지은 跆拳道의 殿堂 國技院에서 世界 17個國의 跆拳家族이 모여 跆拳史上 初有의 世界跆拳道選手權大會를 成功的으로 이끌었음은 跆拳千年의 一大轉機였을 뿐만 아니라 跆拳復興의 새로운 起點을 마련한 것이었다.

우리 祖上이 傳해준 가장 값지고 卓越한 傳統文化 遺産中의 하나인 跆拳道는 1973年을 契機로 傳來의 武道에서 現代的 世界 스포츠로서 發展的이고 革新的인 跳躍을 이룩하였다. 우리 祖上이 물려준 跆拳道는 우리 손으로 품세의 統一을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물로써 우리가 가르친 世界의 跆拳家族을 한 자리에 모아 우리의 中央道場인 國技院에서 跆拳道가 世界 스포츠로 昇華되는 歷史的 瞬間을 다 함께 지켜보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第1回世界跆拳道選手權大會 開會式典에서 本人이 提唱했던 世界跆拳道機構의 創設案은 各國代表의 全幅的인 支持와 聲援을 받아 大會期間中에 和氣와 熱意에 찬 發起人 大會와 創立總會를 열어 名實相符한 世界跆拳道聯盟이 結成되었다. 또한 世界跆拳道의 總本山으로 登場한 國技院은 宗主國內의 昇段 뿐만 아니라 統一된 世界段의 審査 및 段證發給까지 代表하게 되어 權威를 確立하기도 했다.

1973年은 實로 跆拳道의 해였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年間의 實績에 陶醉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지나간 榮光에 沈沒하는 自慢을 警戒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오히려 世界스포츠로 出帆한 跆拳道의 遠大한 새 歷史와 傳統創造의 過程에서 이제 그 跳躍의 기틀을 마련하였을 뿐 解決하여야 할 많은 課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깊이 새

찬

'74를 爲해

金 雲 龍
(世界跆拳道聯盟 總裁)
(大韓跆拳道協會 會長)

겨야 할 것이다.

激動하는 世界속에서, 또한 日本의 가라데, 中國의 쿵푸 等 수많은 競爭者들의 隊列속에서 우리의 前途는 결코 平坦할 것이라고만은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跆拳道의 世界스포츠化는 對內的으로도 宗主國의 우리 跆拳道人에게 보다 큰 責任을 賦與하고 있는 이다. 長身의 헤비級 西歐人들이 修練 및 大會에 大擧參加함에 따라 主導權 維持에 있어서 宗主國의 우리 選手들이나 任員들의 보다 큰 奮發을 要望하고 있음은 看過할 수 없는 事實인 것이다.

本人은 年初에 本誌 卷頭言에서,

「우리의 꿈은 바로 우리의 손이 미치는 가까운 거리로 육박해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 시간과 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 슬기로운 노력과 용기있는 행동, 그리고 협동하는 자세로 매진하자」고 하신 朴大統領閣下의 말씀을 引用한 바 있다.

지난 한해 동안 이루어놓은 굳건한 바탕위에서, 우리는 跆拳道의 跆躍을 위해서도 슬기로운 努力과 勇氣있는 行動, 그리고 協同하는 姿勢로 매진해야 할 것이다.

世界跆拳道聯盟의 組織强化, 國際競技規則의 硏究, 國際審判의 講習, 跆拳道人의 資質向上을 위한 跆拳道大學의 設立, 亞細亞競技大會와 올림픽大會에서의 跆拳道種目 採擇推進 等 수많은 課題는 우리의 피와 땀으로 結實을 보게 될 것이다.

지난 1年間 跆拳道 發展에 獻身的인 熱과 誠을 다한 協會任員과 選手 여러분, 國威宣揚에 앞장서고 있는 海外師範들, 그리고 積極的인 聲援을 아끼지 않으신 國民 여러분에게 깊이 感謝드리면서 보다 內實에 찬 74年度를 期約하는 바이다.

****

Sending Off the Year 1973

And Together We Will Achieve Our Goals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1973 can be called "the Year of Taekwondo." Taekwondo champions from 17 countries participated in the First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held at the newly completed Taekwondo Center, the Kuk Ki Won. The success of this big event was not only a turning point in two thousand years of Taekwondo history but also provided a basis for the restoration of Taekwondo.

Taekwondo, a product of traditional Korean culture has been transformed from a native martial art into a modern international sport this year.

We have finally unified the Forms(Poomsee) and rules of Taekowondo, and witnessed a great historical moment when Taekwondo was transformed into a world sport as Taekwondo champions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gathered at the Kuk Ki Won, the Taekwondo Center.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was organized during the World Taekowondo Championships and its first general meeting was held with full support from each national representative.

The Kuk Ki Won as a center of world Taekwondo has been authorized to conduct Dan promotion tests and to grant official Dan to practitoner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under the auspices of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1973 can indeed be called "the Year of Taekwondo."

And yet, I like to call upon all practitioners to dedicate themselves to the art and spirit of Taekwondo since it is no time to sink in the mere thoutht of past glory. Taekwondo has only started a first step forward as a world sport, and many things are yet to be done.

In today's ever changing world situation, and

****

Un Yong Kim
President
World Takwondo Federation
Korea Taekwondo Association

faced with the challenge of Karate and Kungfu, we can not claim that the future of Taekwondo is all bright and easy. Transformation of Taekwondo into a world sport gives Korean Taekwondo greater responsibility. Korean Taekwondo practitioners and officials should make further efforts to set an example in all fields of Taekwondo as the mother nation of Taekowondo before all other foreign practitoners.

In the preface of one of earlier editions of this magazine, I quoted His Excellency President Park Chung Hee as saying that "Our dream is drawing near and within our reach. Let all of us strive to reduce the time and distance with a constant effort, a high spirit and a cooperative attitude."

Building upon the remarkable work we did together this past year, we should continue to do our best for the development of Taekwondo with greater effort and a more cooperative spirit.

Strengthening of the organization of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research in international rules of Taekwondo, training of international referees, establishment of Taekwondo college for higher quality of Taekwondo people, and application for entry of Taekwondo in Asian and World Olympic Games are some of the programs we will achieve. And together we will achieve our goals.

I am grateful to the officials of the Association, the Taekwondo players, Korean instructors abroad for their dedication to the advancement of the art and spirit of Taekwondo. The same goes to all friends of Taekwondo for their enthusiastic support and cooperation.

With every best wishes.

激勵辭

國技跆拳道의 世界스포츠化에 부친다

金 澤 壽
(大韓體育會 會長)

跆拳道는 우리나라의 傳統的인 競技로, 祖上적부터 綿綿히 發展하여, 오늘에 와서는 世界 많은 곳에 數많은 師範을 派遣, 國威를 宣揚하면서 名實相符한 宗主國이 되었읍니다.

오늘날 이렇듯 눈부신 發展이 있기까지 헌신적으로 努力해 온 跆拳道人 여러분께 感謝를 드리며, 특히 各樣各色의 類似團體를 整備하고, 協會의 內實을 튼튼히 다져 世界로 뻗어가는 跆拳道로 그 面貌를 一新시킨 金雲龍會長의 勞苦를 致賀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sports가 國際舞台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여 그 나라의 이미지를 심는데, 오늘과 같이 重要한 所任을 한 때도 일찌기 없었읍니다. 우리나라의 跆拳道國際師範은 지금 36個國에 700餘名이나 派遣되어 國威宣揚의 使者로서 맹활약하고 있읍니다. 大韓民國의 跆拳道가 國際 sports의 한 種目으로 再認識되어 가고 있는것입니다.

지난 第1回 世界跆拳道選手權大會만 보더라도, 아시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유럽, 美洲, 아프리카에서까지 選手團이 왔읍니다. 비록 우리나라의 師範들이 傳授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힘과 技倆은 우리로 하여금 새삼 놀라게 한 바 있읍니다.

世界는 文化交流에서 뿐만아니라 sports交流를 통해서도 점차 좁혀지고 가까와져 가고 있읍니다. 우리가 宗主國이라는 自負만을 갖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努力하고 精進하여 언젠가는 國際綜合競技大會의 正式種目으로 採擇될 때를 對備해서, 跆拳道人 여러분의 더 많은 奮發이 있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世界로 뻗어가는 韓國의 跆拳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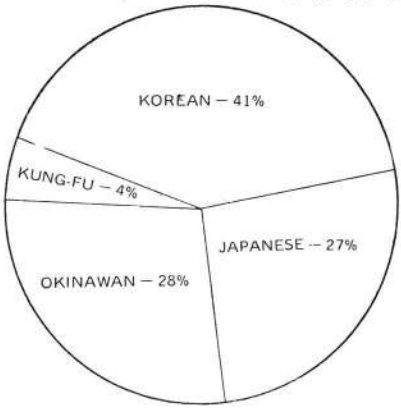
美國 武道界를 席捲한 韓國 跆拳道

——Black Belt誌 調査 73 美 武道 現況 報告書에서——

미국내의 무도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태권도가, 전체의 81%로 다른무도 19%에 비해 계속월등히 우세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지난 한해동안 약 16,000명의 새로운 가족이 늘어났으며 그중 약 5,900명의 어린이들도 격지않은 흥미를 가지고 있고 여성들도 6,000명이나 새로운 회원이 되었읍니다. 현재 미국에는 한국의 태권도, 일본의가라데스타일, 중국의 공푸스타일(18기), 오키나와 스타일 등 그밖에도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각도장에서는 스타일을 자주바꾸기 때문에 무도계도 매년 급격히 변하고 있읍니다. 또 무도인들이 어떠한 완벽한 조직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찬성, 반대, 등 한개의 체제를 이루지 못하고 아직 여러개의 조직체 밑에 거의 모든 도장이 속해있읍니다.

그중요 원인은 한국인이 만든 조직체에 일본이나 중국의도장이 가입하려 들지않고 또 그와 반대로 일본인의 조직체에 한국인의 도장들이 가입하려하지 않기 때



문에 미국의 무도계란 어느면에서 동양 각나라들의 미국내에서 경쟁이라고도 할수있읍니다.

東洋 各國의 경쟁에서 韓國이 獨走

현재의 미국내의 총 무도인구수는 약 164,800으로추산되며 지난해의 148,000보다 약 16,000명 약 10%의 성장율을 보였읍니다.

그중 한국의 태권도 인구가 41%로 여전히 가장 우세하며 다음이 오기나와 스타일로 28%의 성장율을 보여 일본의 가라데 인구의 27%보다 더 인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읍니다. 다음이 궁푸(18기) 인구로 약 4%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태권도가, 지난해의 75,000명에서 68,000명으로 약 7,000명이 감소되었으며 일본의 가라데도 지난해의 50,000명에서, 34,000명으로 6,000명이 감소되었읍니다. 가장 우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의 14,000명에서 46,000명으로 42,000명의 새로운 회원을 얻은 오기나와 스타일로 가장큰 성장율을 보였읍니다. 2년전부터 한국의 태권도가 가장큰 성장율을 보여주더니 이해에는 조금 주춤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1967년 이전만해도 미국인들이 무도는 일본가라데가 유일한 것인줄만 알고 있다가 한국의 태권도를 차츰이 해하는데 따라서 지난해에는 다른 도장들이 적자운영을 해도 태권도 도장만은 흑자운영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

과 도장들이 이름을 자주 바꾸고 또 현재에는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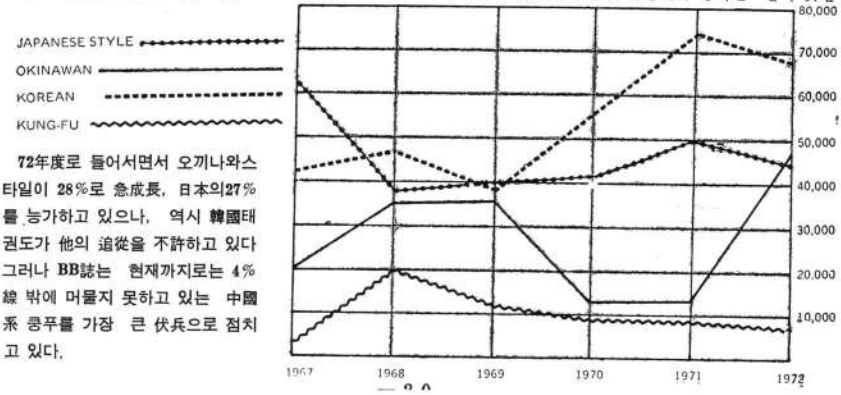
美國 全體 武道界의 81%를 占하는 태권도 人口는 다시 韓國(태권도), 日本, 오끼나와(가라데), 그리고 中國(쿵푸)系 스타일에 의해 四分五裂되어 있다. 그러나 이중 韓國태권도系 人口가 41%로서 단연 先頭를 달리고 있다.

인이 경영하는 도장도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놀라운 사실은 어떤 사범은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태권도인지 일본의 가라데인지, 또는 중국의 무술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읍니다.

이해에 들어서면서부터 중국의 궁푸(18기)가 차츰인기를 얻게되자 어느도장은 간판을 바꾸어 궁푸도장이라고 하는등 부게없는 행동을하는 도장도 보였읍니다 이 현상은 중국인들의(BRUCE LEE등) 영화가 미국내에서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도 볼수있읍니다. 이러한 현상들로 볼때 미국내의 무도계란 거의 모두가 원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있다는 것을쉽게 눈치챌 수 있읍니다.

거북이 유도계

미국내의 유도계는 현저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1971년도의 39,000명에서 이해의 38,300명으로 700명 정도가 줄어들었읍니다. 이와같은 현상은 아마 태권도가연예계처럼 활발히 활동하는데 대해 유도계는 큰 시법이나 시합이 없으므로 많은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한



72年度로 들어서면서 오끼나와스타일이 28%로 急成長, 日本의27%를 능가하고 있으나, 역시 韓國태권도가 他의 追從을 不許하고 있다 그러나 BB誌는 현재까지로는 4%線 밖에 머물지 못하고 있는 中國系 쿵푸를 가장 큰 伏兵으로 점치고 있다.

美國의 跆拳道 最優秀 選手

BB 베스트 10中 9가 韓國系

TOP TEN Tae Kwon Do MEN In The U.S.A

◇…… 美國의 武道 專門誌 블랙·벨트誌는 또한 73年度를 총정리……◇
◇……하는 年誌(Year-Book)를 통해 현재 美國에서 활약하는 태권……◇
◇……도 10大 最優秀선수의 리스트를 발표했다. ……◇
◇…… 가장 많은 시합과 大會에 참가, 가장 많은 우승을 보인……◇
◇……우수선수들을 다시 엄정 투표에 의해 선정됐다는 이들 10大……◇
◇……最優秀 선수들중 8명이 韓國 태권도系이며, 나머지 1명은 韓……◇
◇……國과 오끼나와를 兼한 스타일, 나머지 1명만이 오끼나와 스……◇
◇……타일인 사실로 밝혀졌다. ……◇
◇…… 참고로 이들의 리스트와 略歷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빌·월러스(Bill Wallace): 헤비級 오끼나와—韓國系—3年間계속 最優秀선수의 위치를 보유하고 있다. 재빠른 足技의 소유자인 빌은 美國전역의 시합은 거의 빠뜨리지 않고 참가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장본인

그가 72-73년도에 싸울린 실적을 보면 조·루이스, 글렌·키니, 병유등 强敵을 격퇴했다. 途中 다리의 부상을 입고 요양중인데, 그의 단점으로는 시합 테크닉의 한정된 테퍼터리와 守備위주의 스타일」이 지적된다. 한국 태권도와 오끼나와 쇼린류 스타일로서 현재 테네시州 멤피스에서 道場을 경영하고 있다 27세

② 제프·스미드(Jeff Smith): 헤비級 韓國系—매릴랜드, 로크빌 출신의 날센 태권도人, 금년에 헤성처럼 등장했으나, 주위의 評은그가 멀지않아 랭킹 1위를 차지 하리라는것.

「그의 테크닉은 빠르고, 효과적이며, 아름다울뿐 아니라 또한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있다. 그는언제 누구와 싸워도 이길것」이라는 것이 동료 선수들의 말이다.

72년 후반기 그는 앨버트·칙스로이·커번, 병유, 그리고 수많은 챔피언을 눌렀다.

그의 가장 뛰어난 전적을 살피면 빌·월리스(5:1), 프레스·워런(5:2), 다넬 가르시아(5:4), 하

것같읍니다. 많은 도장이 현황조사를 할 동한 여름휴가로 문을닫았고 또 많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유도부에서도 여름방학 때문에 정확한 숫자라고는 할수 없지만 이해의 유도계란 거의모든 유도도장은 유단자가 없는 느낌이 들었읍니다. 말할수 있는 이유는 많은 유도 유단자들이 태권도 또는 다른 무도로 전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도계에는 두개의 큰 조직이 있는데 그것은 USJF와 USJA입니다. 그런데 아직 약 2,000명 정도의 학생이 들중 아무단체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아직도 한개의 위엄있는 단체가 되기에는 많은 고통이 있을것 같읍니다. 유도는 총 12개의 시합을 지난해에 가졌읍니다.

합기도의 인구는 지난해의 3,700명에서 7,900명으로 약 4,200명이 늘어났읍니다. 큰 발전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1970년의 8,500명의 선을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동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합기도 도장들은 광고를 잘내지 않고 있읍니다. 앞으로의 합기도는 현재의 합기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않는이상 그리밝다고 생각할수는 없읍니다. 현재에는 2개의 조직체가 있읍니다.

주 : 일본의 가라테가 미국에 소개된 것은 일본책에는 1905년경으로써 있지만 실지로 도장이 생기고 학생이 배우기는 약 1930년경입니다. 한국의 태권도는1950년경에 미국에 소개되었읍니다. 따라서 미국의 유명한 WEBSTER사전에 무도라는 말은 카라테라고 씌있읍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태권도는 Korean 가라테, 일본의 가라테는 Japanese 가라데라고 불리고 있읍니다. 그리고 오끼나와 무도는 영어로 Okinawan Karate(가라데)라고 불리고 있읍니다.

주 : 이 보고서는 1972년 7월 1일부터 1973년 6월 30일까지를 1년으로 한 것입니다.

國技院에서 열렸던 第4回 世界跆拳道選手權大會에 美 東部팀의 대표선수로 참가했던 마이크·워런(左) 앨·칙스등이 美國 선수 베스트 10에 각기 4位, 10位로 랭크되고 있다.

워드·잭슨(6 : 5) 등에게 팔호안과 같은 스코어로 승리했다.

5피트 11인치의 신장에 25세인그는 워싱턴팀의 主戰 멤버로 알려져 있다.

③ 존·나티비다드(John notiv·idad) 헤비級, 韓國系—작년도 랭킹 7위에서 3위로 뛰어오른 태권도人, 훌륭한 足技와 재빠른 反應은 美國선수들 사이에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5피트 11인치의 신장에 175파운드의 體重을 갖고있는 그는 로이·커번, 하워드·잭슨등을 패배시킨바 있는 26세의 南캘리포녀 出身. 척·노리스와 함께 태권도를 배운 그는 몇달전 道場을 차렸다.

④ 마이크·워런(Mike Warren) : 라이트級, 韓國스타일—아직 21세도 안된 약관으로서 美東部以外의 지역에는 거의 선을 보이지 않았으나, 美國의 톱선수들 사이에는 「最優秀中의 하나」로써 손꼽히고 있다. 왜냐 하면 그와 對戰한 사람들이면 누구나 그의 「게임운영의 妙, 날카로운 스피드, 그리고폭발적인 足技」에 놀라고 만다는 것 「아마 戰略面에서 그를 당할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衆評.

73年度 워런生涯 최대의 경기는 美國이 아닌 宗主國 韓國에서 일어났으니 바로 서울 國技院에서 열린 第1回 世界跆拳道 選手權大會이다 그는 美國 東部팀이 우승국 韓國을 제외하고 2位의 영예를 차지하게한 수훈을 세웠다. 또한 개인전에 重量級으로 출전, 역시 준우승을 차지했다.

美國內에서 東部 지역을 휩쓸고 있는 그는 앨버트·칙스와 가장 자주 接戰을 벌이는데 라이트級 챔피언을 차지한 그는 2年間 헤비級을 놓고 칙스와 경연하고 있으며, 7, 年에 얻은 타이틀을 금년에다시 근소한 差로 칙스에게 양보했다.

⑤ 로이·커번(Roy Kurban) : 헤비級, 韓國系—지난 2년간 태권도 선수권 大會에 줄곳 참가해온 그는 올해들어 처음 베스트 10에 랭크된다. 72年 후반부에서 73年전반부에 그가 기록한 승리의 리스트를 보면 제프·스미드, 존·나티비다드, 제임스·버틴, 패트·윌리, 프레드렌, 데베트리우스·하바니스, 알제리아 兄弟, 봄과 랠프등이다. 「영리하고 재빠르다」는 형용사로 통하는 그의 長技는 「부드러운 테크닉과 分析的인 게임 운영」을 정확히 연결시키는 점이다. 스스로는 「앞다리 돌려차기」를 主武器로 내세운다. 6피트 1인치 신장에 180파운드의 체중, 24세의 멕사스 출신으로 원래는 미들級 챔피언으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른다.

⑥ 프레드·렌(Fred Wren) : 라이트級, 韓國系—間斷없는 攻勢로 이름난 그는 무려 4년간 계속 톱10속에 랭크되고 있다. 當年 25세에 불과한 태권도인이지만 그는 고참선수중의 고참으로 세인트·루이스出身. 체중 165파운드 소유자로서 거구의 에베레트·에디를 이겨냈다.

⑦ 병유(Byong yu) : 라이트級, 韓國系 고도의 기술을 가진 태권도인이며 천부적인 쇼맨으로 알려진 그는 볼택·벨트誌 톱텐에 계속 랭크되는 一面, 38세라는 많은연령에도 불구하고 피로의 기색도 없이아들빌되는 新人선수들과 겨루면서도 승리를 계속한다. 다양한 재주꾼이기도한 그는 앨버트·칙스를 격퇴시켰고, 다널·가르시아, 빌·월러스등에게 근소한 차이로패한바있다 美國태권도계에 격파의 王으로도통하고 있다.

【25p에 계속】

崔永珍 4段 이태리 주둔

한국 跆拳道 修練, 존슨 大統領 표창받아

한국의 跆拳道 청년이 美軍에 入隊, 현재 伊太利에 주둔하는 美軍兵士들의 훈련과목으로 태권도를 지도, 美國 닉슨 大統領으로부터 大統領 스포츠賞을 수여받았음이 밝혀졌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跆拳道 3段의 崔永珍 사범으로 11月초 大韓跆拳道協會를 방문 이 소식을 전했다.

崔 3段은 71年 11月 3日 美軍에 入隊, 현재 이태리 주둔 美軍司令部(Headquartors United States Army South European Task Force)에 근무중, 소속(HHB 2d Bn. 30th FA) 전 大隊員에게 훈련과목으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다는게. 崔 3段의 이같은 공로는 닉슨 大統領에게까지 알려져, 지난 6月 그는 美大統領 스포츠賞(Presidential Sports Award)을 수여받았다. 北部 이태리 비첸자에서 태권도 시범을 통해 日本 가나데와의 경쟁에서 우수성을 보여준바 있다는 그는 현재 來韓中이며 協會 4段을 應審한바 있다.

日本大學에 韓國跆拳道部 盛況

康程俠사범 韓國語 口令으로지도

태권도사범 日本초청차 태권도 일본 총본부 임원 來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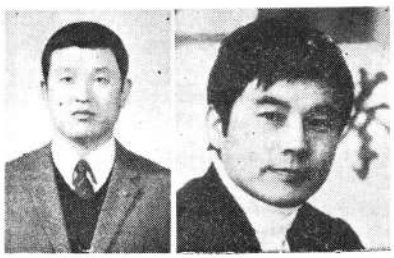
가라데의 본산으로 自處하는 日本內에서 한국 跆拳道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가고 있어, 심지어 日本의 有數大學에서는 韓國跆拳道部까지 신설되며, 한국어 구령에 의한 수련이 행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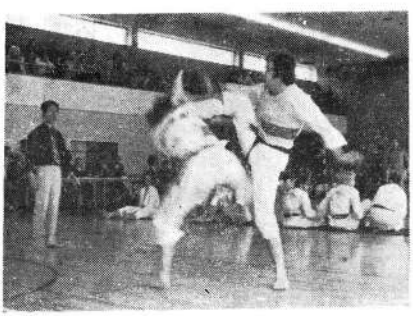
화제의 大學은 日本 大阪產業大學인데, 신설된 韓國跆拳道部에는 在日교포 한국인 사범인 康俠사범이 우리말 口令으로써 日本人 학생 20여명을 지도하고 있다.

이 사실은 大韓跆拳道 日本 總本部協會 黃七福 會長, 金泰鎭 理事長과 함께 11月初 來韓한 康사범에 의해 밝혀졌다. 康사범에 의하면, 日本內 가라데界에서 한국 태권도에 대한 인식과 두려움이 高潮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현 추세가 계속될 경우 日本 가라데는 韓國跆拳道에 의해 완전히 눌려 버릴것」이라고 日本가라데 重鎭이 우려의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배알을 정도라는 것. 日本 가라데 인사들이 韓國 태권도에 대해 갖는경외심은 「뛰어난 발차기와 스피드 그리고 힘」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겨루기에서 보여주는 태권도의 유연성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는 얘기다.

黃七福 회장 일행은 大韓跆拳道協會 會長겸 世界跆拳道聯盟의 金雲龍 총재를 예방, 日本에 韓國 태권도 사범 초청문제를 의뢰했다.

日本의 大學에 韓國跆拳道部를 설치, 우리말 口令으로 日本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康程俠사범(左)과 美國人 태권도 수련생 3명과 함께 入山修道次 來韓한 崔昌海사범(右), 西獨의 태권도 경기에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이후 護具착용이 크게 流行을 보고있다. 사진(下)은 西獨 14個 都市對抗 태권도대회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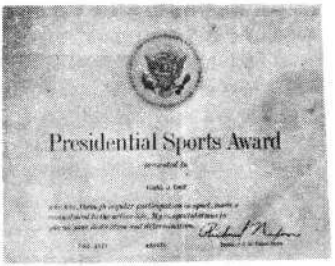
美國 태권도 수련생 3名

崔昌海 6단과 함께 來韓 入山修道

美國 시카고 市立大學에서 태권도 講師로 활약하고 있는 崔昌海 6단이 최근 美國人 태권도 제자 3명과 함께 宗主國에서의 특수지도를 爲해 내한했다.

이번에 崔사범과 함께 내한한 美國人 태권도 수련생들은 짐·말쉬(4단 : 31세), 탐·케이(초단 : 23세), 유진·스나이드(5급 : 37세) 등으로서 이들의 來韓修練의

韓國의 태전도 3段이 이태리 주둔 美兵士의 PT(訓練) 코스를 태권도 수련으로 代替시킨 공로로 美 닉슨 大統領으로부터 大統領 스포츠賞(上)을 수여받았다. 사진 (下)는 이태리지역 美兵士들에 태권도를 지도하는 崔永珍 3段



베피터리 중에는 慶州 삼불사에서 7일간에 걸쳐 入山修道를 포함하고 있어 이채를 띄웠다.

7日 入山修道중에서 2일간은 斷食修練을 치뤘다하는데, 내용은 2그일간 주야를 통해 단신 산위에서 수련한다는 것.

崔사범은 이번 내한입산수도가 外國人으로서는 처음있던 수련방법이라고 호평해 하고있다.

朴東根사범 뉴저지버서 年例 跆拳道 選手權大會 주최

美國 카나다 等地서 출전한 선수들로 大盛況을

美國 뉴·저지州 저지市에서 활약하고 있는 朴東根사범이 주최하는 第1回 年例公開跆拳道選手權大會가, 최근 열렸는데 美國은 물론 카나다 등지에서 무려 500餘各의 跆拳道人이 참가하는 大盛況을 이루었다는 소식이다.

이토록 많은 選手들이 참가한 大會는 그곳 디킨슨 高等學校 體育館을 가득메운 觀衆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정대로 예선과 결선을 끝마쳤다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번 大會의 最高 챔피온십을 놓고 두명의 카나다 선수들이 최후의 결전을 벌였는데, 헤비급 참피온 진·피카드및 라이트급 참피온 메이·니키엘과의, 對戰에서 라이트급의 메이가 승리했다.

西獨 跆拳道界 協會制度 護具 競技 本格化

퀼른 김만금 사범이 소식전해

國技院에서 열린 제1회 世界跆拳道選手權大會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태권도 경기에 점차 大韓跆拳道協會의 규정및 경기방식을 채택되고 있다.

西獨 퀼른의 무사도 스포츠장에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김만금 사범이 협회에 보내온 서신에 의하면 西獨에서는 한국과 같이 護具착용 경기가 시작되고 있

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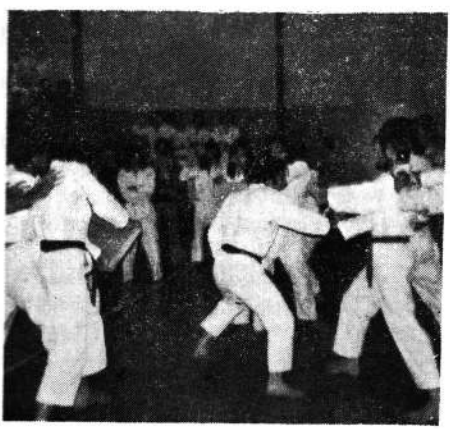
「……지난번 세계 선권대회 덕택으로 이곳 獨逸에서는 이제 한국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읍니다. 따라서 금년 獨逸선수권 대회까지만 호구없이, 경기가 치뤄지며 내년부터는 완전한 탈바꿈을 해서 대한 태권도협회 규정대로 호구착용 경기방법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北部 여러도시에서는 수차의 각도시대항 친선 시합에서 호구호를 착용아며 완전히 협회 규정대로 진행되고 있읍니다.

지난 9월 30일에는 本도장주최로 개도시대항 시합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의외의 참가신청이 쇄도, 저녁9시에야 시합이 끝날정도였읍니다.

처음 참가한 팀들은 이 시합 방식에 처음에는 이해가 안가는지 불평을 말하는 팀도 있었으나, 호구시합의 실효성을 실감한 뒤에는 저마다 호구를 구할수없느냐고 주문과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읍니다. 이번 시합에 참가한 사은 정광수, 송찬호, 김우광, 장광명, 박광철, 곽근식 등 10여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내년부터는 西獨 태권도협회가 본격적인 호구경기로서 협회 규정방식이 널리 보급될 것입니다. 금년의 세계선수권대회를 계기로 이곳 독일의 태권도계는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태권도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金雲龍 총재님을 비롯 여러 임원들의 덕택으로 생각합니다……」

以上이 西獨 쾰른에서 (Mu Sa Do Sport Schule, 5 Koln 30, Kepler strg) 태권도를 지도하는 김만금 사범의 서한 요점이다.



美國의 태권도 테스트 10

⑧ 하워드·○슨(Howard Jackson) 라이트級, 韓國系—작년 까지만해도 웨스트·코스트 팬들에게전혀알려지지 않았던 하워드·잭슨은 최근 强力하고 多樣한 그리고 安定된 테크닉으로 美全域을 휩쓸고 있다. 제프 스미드와 무승부를 기록한 외에, 世界跆拳道選手權大會 出戰 선수선발전에서 디메트리우스·하바니스를 이긴바있다.

⑨ 제리·피딩턴(Jerry Piddington) : 헤비級—오끼나와系—1960年代 후반부터 두각을 나타내 조·루이스, 켄·너드슨, 존·내티비다드 제임스·버틴, 아티스·시몬스, 짐 켈리, 조·콜리, 잭·모들리, 라일리·호킨스, 에베렛트·에더, 알제리아 兄弟, 등과 싸워이겼다. 29세의 버지니아州, 리치몬드 出身

⑩ 앨·칙스(Al Cheks) : 헤비級 韓國系—워싱턴 D.C出身 長身의 칙스는 현재 21세로서 벌써 美國베스트 10에 올랐다. 그는主로 美 東部에서만 出戰했었으나, 그의높은 기술은 보는이의 허를 휘두르게 한다 今年까지는 마이크·워렌의 빛에눌려지내왔으나, 今年度 시합에서 워렌을 업은바 있다. 또한 韓國에서 열린 第1回 世界跆拳道선수권大會에서 重量級 3位로서 入賞한바있다

【22p에서 계속】

全國 各種 跆拳道 大會 競技評 및 戰績 및 金 雲龍會長 致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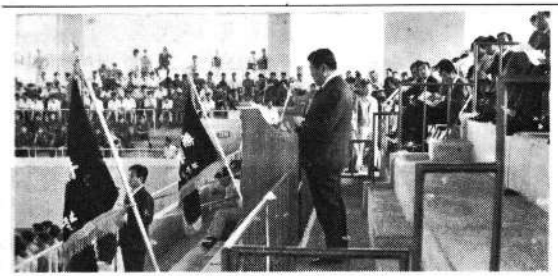
Ⅰ. 大統領 下賜旗 쟁탈 第8回 全國 團體 跆拳道大會

Ⅱ. 第54回 全國體育大會 跆拳道部 競技

Ⅲ. 第1回 會長旗쟁탈 全國 國民學校 團體對抗 跆拳道大會

NATION WIDE TAE KWON DO TOURNEYS

拳法總圖



격려사를 낭독하는 김운용 회장

大統領 下賜旗 爭奪戰을 통해 "새로운 章의 跆拳道史에 傳統創造를"

金雲龍 會長 激勵辭

尊敬하는 內外貴賓 여러분!

그리고 親愛하는 選手 任員 여러분!

本人은 大韓태권도協會 會長으로서 또한 世界태권도聯盟 總裁로서 今年으로 第8回가 되는 大統領 下賜旗爭奪 全國 團體 태권도大會를 開幕함에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큰 感懷와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바입니다.

特히 이번 大會는 우리 손으로 지은 태권도의 殿堂인 國技院 建立 以後 처음 맞는 大統領下賜旗 爭奪大會라는 데에 큰 意義가 있읍니다.

태권道는 古代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傳해 내려온 우리의 傳統文化中 가장 卓越한 文化遺産이라는 事實은 周知하는 바와 같으며 어느 時代를 莫論하고 青少年들의 健康한 肉體와 氣像을 鼓吹해온 祖國守護의 精神的 支柱이기도 했읍니다.

偉大하신 朴 正熙 大統領 閣下의 卓越하신 領導力下에 태권도는 國技로 昇華될 수 있었고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眞正한 世界스포츠로서도 成功的인 出帆을 보았읍니다.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國技院에서 지난 봄 世界 17個팀이 參加한 世界 태권道選手權大會를 가졌고, 또한 世界 태권道聯盟의 結成까지 보았던 것입니다.

世界聯盟의 事務局을 둔 國技院은 國內뿐 아니라 世界 各國을 통털은 國際審査와 技術指導의 總本山으로 登場했고, 또한 教育院을 新設하여 體系的 理論과 學術的 研究 等 高度化된 태권도 研究의 象牙塔으로서 着實한 出發을 서두르고 있읍니다.

尊敬하는 內外貴賓 여러분!

그리고 選手 任員 여러분!

國技院 建立 以後 처음 열리는 이번 大統領下賜旗 爭奪大會는 태권道 宗主國인 우리 民族의 얼과 슬기 그리고 技와 힘이 한데 뭉쳐, 불꽃 튀기는 一大 會戰場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오늘 選手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勇戰奮鬪하는 一擧手一投足은 國內뿐아니라 世界 태권도人들이 注視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大會를 通해 平素에 닦아온 實力과 技量을 遺憾없이 發揮함으로써 宗主國 엘리트들의 指導者像을 具顯하는데에 좋은 龜鑑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第2回 世界태권道選手權大會, 아시아태권道選手權大會, 태권道의 올림픽種目 採擇 推進, 태권道大學의 設立 等 解決을 기다리는 數많은 課題들이 우리의 더욱 큰 분발을 부르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이번 大會를 通해 새로운 章으로 접어든 태권道 歷史와 傳統創造의 기틀을 굳건히 할 模範的競技를

보여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태권도 復興뿐 아니라 스포츠태권도를 通한 國力伸張과 民族中興에 直結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보다 알찬 大會의 推進을 繼續해 가는 서울新聞社와 大韓태권도協會 任員 여러분 및 積極 後援을 아끼지 않으시는 國民 여러분께 깊은 感謝를 表하는 바입니다.

1973年 10月 14日

大統領 下賜旗 쟁탈 第8回 全國 團體 跆拳道大會

대통령기 쟁탈전 우승팀인 육군 A팀

競技評 :

一般部 對戰에서 陸軍 A팀과 海兵隊 A팀 激突

대통령기 쟁탈

제8회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를 마치고,

제8회 대통령기 쟁탈 단체전 경기가 국기원에서 9月 14日부터16日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금번 대회는 태권도인의 요망인 국기원이 개관된 후 첫번째 갖는대통령기 쟁탈전이요, 또한 일반부와 학생부(고등부)가 분리된 후 갖는 두번째 경기로써 전국의 태권도 가족이 오붓이 자리를 같이할 수 있었던 점에서 자못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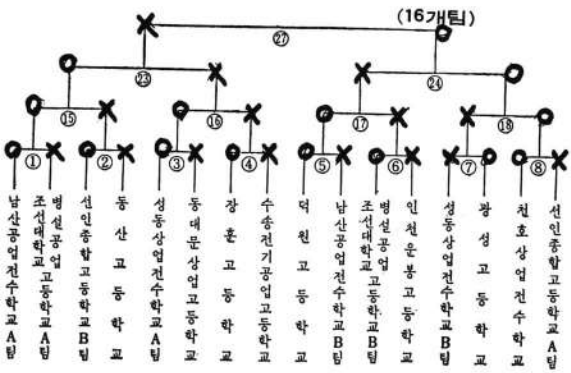
특히 금번 대회는 外的으로 세계대회를 통해 과시한 태권도를 內的으로 보편적 스포츠로서 정착 발전시키고, 경기를통해 태권도인의 유대강화와 기술향상을 이루어 명실상부한 全 世界人의 태권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호뭇하게 생각한다.

경기는 고등부 16개팀과 일반부 14개팀이 참가하여 3일간 열전을벌였다. 그러나 발전되는 태권도경기기술과 태권인의 수적 증가에 비해 작년보다 고등부에서 7개팀, 일반부에서 8개팀이 적었고 일반부에서는 동아대 A,B팀이 기권함으로 실질적인 지방팀 不在의 현상을 초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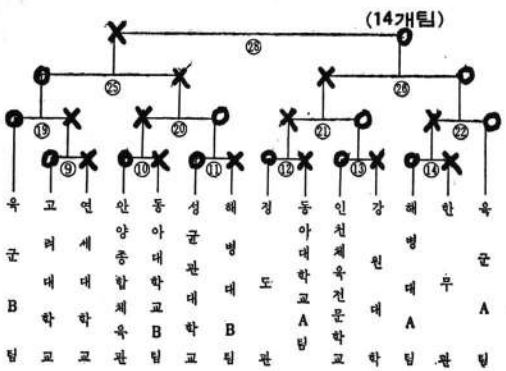
첫날 강원대학 팀은 인천 체전과의 대전에서 3:2로 석패는 했지만 그 최선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둘째날 고등부의 게임은 첫날에 비해 자웅을 가르기 어려운 경기였으며 예상외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즉 작년도 4위의 장훈팀은 성동상업 B팀에게 3:2로 석패했고 준우승교인 광성역시 천호상업전수학교에 3:2로 패하였다. 특히 실질적인 결승이라 할 수 있었던 광성과 천호의 대결에서는 신체의 유연성이 전문기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일반부 해병대 A팀과 육군 A팀의 대전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격돌끝에 결국 득점위주의 육군이 박력과 투지로 맞선 해병대를 3:2로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하였다. 여기에서 불만을품은 해병대는 결국 관중과 他선수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말았다. 육의 티라고나 할까? 대통령기 쟁탈전이 규모나 기술이나 태권도인의 정신수양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에서 일시나마 난동으로 얼룩져 버린 것은 심

大統領 下賜旗 爭奪
第8回 全國 團體對抗 跆拳道大會
對陣表 및 結果

학 생 부 (고등학교)



일 반 부



히 유감된 일이며, 참가 선수의 정확한 경기규정 이해 및 정신적인자세 심판원의 소신있는 자기표현 군 태권도의 경기 참여 문제가 일반태권도인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再考하여 根本的인 대책이 더욱더 절실하여졌다. 그리고 마지막날 고등부 결승에서 천호상업은 남산공전 A팀을 누르고 우승하였으며 성동상업전수학교 B팀은 덕원고를 누르고 3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개인특기상을 받은 천호상업의 하석광군은 1학년으로서 장래가 촉망된다. 또한 일반부에서는 육군A팀이 우승, B팀이 준우승하였고 인천체전이 3위를 하였다.

금번 대회를 마치고 나서의 느낌은 내 집을 가꾸고 내 자식을 기르듯 태권도를 아끼고 예의를 존중하는 선수를 양성할 것이며 모든 결과가 다 그러하듯 「승리의 영광」이란 앉아서 얻는 떡이 아니라 싸워서 얻는 戰利品임을 명심하여 우리 모두가 머리로 생각하는 태권도를 몸으로 실천함에 있어 不斷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競技分科

委員長

金寅錫氏 評

第54回
全國體育大會
跆拳道競技

競技評 :

헤비級의 技術向上
選手大型化에 밝은 전망
"부상선수 속출은 심판의 예리한 판단촉구"

1973년도 전국 체육대회 태권도 경기가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4일간 265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부산 데레사여중 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의 규모나 출전 선수의 수로 보아 개인전으로서는 年例行事 中 그 비중이 가장 큰 대회로서, 선수 자신이 향토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다는 사명감과 출전도의 성적을 상위권으로 끌어 올리려는 임원및 응원단의 열띤 박수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장소 선택 면에서 볼 때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연결된 선수 대기실은 매우훌륭하였으나, 경기장의 협소로 진행에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었던 점과 관람석의 부족으로 체계있고 질서있는 응원을 할 수 없었고, 임원 및 선수 외에는 거의응원에 참여할 수 없었던 안타까움은 못내 서운한 것이었다.

한편 경기 면에서는 선수들의 체체, 실력이 계속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경기전의 체력과 체중 관리에 코오취들의 주의가 더욱 요청된다 기술 면에서의 진전은 크게 눈에띄지는 않았으나 경쾌한 동작이나 위력과 직결되는 민첩성은 작년에 비해 보편적으로 향상되었으며 특히 헤비급은 참가에 의의를 찾던 종전의 경우 보다 월등히 기술이 향상되어감을 볼 때 태권도도 다른 운동과 같이 선수의 大型化에 밝은전망을 보여 주는데 밝은 전망의 계기가 이번 全國體典이 아닌가 느껴진다.

특히 금번 대회에 인상적이었던 점은 충남팀의 경기 기술과 득점연결이었다.

「양보의 미덕」이라는 양반의 기질 때문인지 아니면 기본기술을 공격으로 연결시키는 데에 필요한 박력과 패기가 부족한 것인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가? 그리고 금번 대회 중 매스컴에 대두된 부상선수의 속출은 앞으로 있을 지방대회를 앞두고 경기를 운영하는 심판들의 「예리한 판단」과 참가 선수들의 「규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는 문제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각 도별 성적을 살펴 보면 52회 53회의 우승도인 전북이 6위로 밀려났는가 하면 6위의 부산이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 서울과 각축전을 벌린 끝에 2위에 진출하였고 작년 4위의 서울이 오랫만에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끝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도 협조와 봉사에 힘을 기울여 주신 부산 임원과 심판, 그리고 중앙의 협회 임원께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제54회 전국체전 태권도경기가 벌어졌던 釜山 데레사女中 체육관

第54回 全國體育大會 戰績現況

▲高等部	핀 급	1위	하석광(서울)	
		2위	김성기(경기)	
		3위	이수인(경북)	주병원(부산)
	푸라이급	1위	김왕근(부산)	
		2위	손태한(서울)	
		3위	원종안(경기)	최재헌(전북)
	빤 탐 급	1위	김용구(서울)	
		2위	이홍규(부산)	
		3위	오상헌(제주)	이유성(경북)
	페 터 급	1위	송영기(충북)	
		2위	문상훈(경남)	
		3위	백성조(부산)	정수근(서울)
	라이트급	1위	김범수(경기)	공동우승
		1위	김세혁(서울)	
		3위	양남헌(제주)	한규석(전남)
	웰 터 급	1위	허남섭(부산)	공동우승
		1위	김덕환(서울)	
		3위	조덕호(강원)	김종명(전북)
	미 들 급	1위	심용보(경남)	
		2위	김영환(서울)	
		3위	윤천의(경기)	추동용(부산)
	헤 비 급	1위	김성태(부산)	
		2위	성기홍(전북)	
		3위	홍형만(강원)	
▲일반중기부	핀 급	1위	윤창욱(서울)	
		2위	오일호(제주)	
		3위	지경정(경북)	김정열(경남)
	푸라이급	1위	이성두(충북)	
		2위	김신영(전남)	
		3위	최찬기(부산)	문희빈(경기)
	빤 탐 급	1위	남기정(전북)	
		2위	김수영(서울)	
		3위	전세군(충북)	신만섭(충남)
	페 터 급	1위	임영식(경북)	
		2위	박 원(경기)	

第1回 會長旗 쟁탈

全國國民學校 團體對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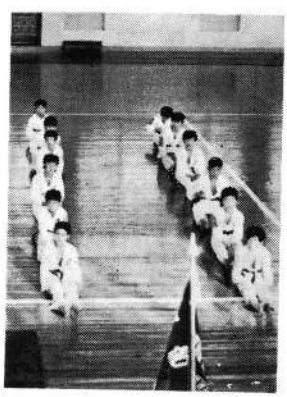
跆拳道大會

競技評：

어린이 선수의 大擧참여 跆拳道의 凡國民的 면모 一新

태권도인으로서의 鬪志 및 氣像도 可賞

지난 10月 27日부터 28日 양일간에 걸쳐 제1회 전국국민학교 단체전이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처음으로 전국 국민학교 단체전이 개최된 데에 對해서는 그 의의가 자못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각



▲ 제54회 전국체전 각 시 도별 순위 및 체점수

등 위	출전도명	점 수
1 위	서 울	191점
2 위	부 산	184점
3 〃	경 북	157점
4 〃	경 기 충 북	147점
6 위	전 북 전 남	129.5
8 위	강 원	114.5
9 위	충 남 경 남	111점
11 위	제 주	105점
12 위	재 일	16.5
13 위	재 미	6.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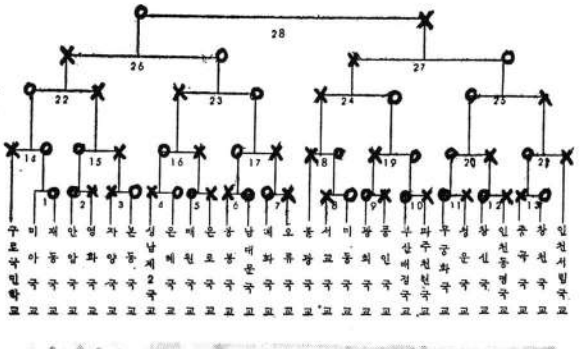
▲ 일반고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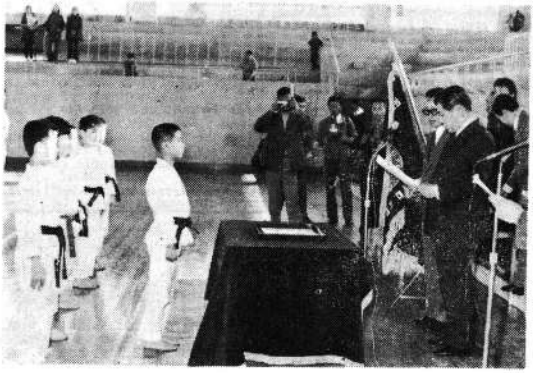
		3 위	한상열(전남)	오용환(부산)
	라이트급	1 위	송신환(부산)	
		2 위	김영석(경북)	
		3 위	김중열(강원)	강홍남(경기)
	웰 터 급	1 위	김철환(충북)	
		2 위	이기호(경북)	
		3 위	오수일(강원)	유영합(경기)
	미 들 급	1 위	백남식(전북)	
		2 위	장용진(전남)	
		3 위	박진종(서울)	오민환(경북)
	헤 비 급	1 위	김정식(서울)	
		2 위	김상배(강원)	
		3 위	차의수(경기)	육재호(경남)
	핀 급	1 위	송상희(경북)	
		2 위	남상덕(서울)	
		3 위	박춘일(강원)	전용구(충남)
	푸라이급	1 위	손주몽(전북)	
		2 위	전종태(서울)	
		3 위	백만기(충북)	이갑주(충남)
	빤 탐 급	1 위	김수영(부산)	
		2 위	이기환(경기)	
		3 위	나종한(전남)	김억곤(강원)
	페 터 급	2 위	강용기(제주)	황봉길(충북)
		3 위	이광훈(충남)	김옥진(경북)
	라이트급	1 위	김헌규(강원)	공동우승
		1 위	이문기(경기)	
		3 위	신덕성(부산)	이동근(제주)
	웰 터 급	1 위	임정호(경북)	
		2 위	이중연(충북)	
		3 위	김용호(부산)	고봉신(서울)
	미 들 급	1 위	유성헌(부산)	
		3 위	현창환(서울)	노봉현(강원)
			박영돈(전남)	
	헤 비 급	1 위	노순명(경기)	공동우승
		1 위	김병민(서울)	
		3 위	김충근(충남)	서동현(전북)

단체우승

1 위	서 울	191점
2 위	부 산	184점
3 위	경 북	157점

第1回 회장기 쟁탈 전국 국민학교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대진표 및 전적





어린이 태권도 챔피언들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金 雲龍 회장

금도시에서 지역적으로 거행되어온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대회가 이번에 전국규모로 개최된데에 對해서 이번 대회를 이끌어 주신 김운용회장님 이하 수고해 주신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번 대회는 다른 어느 운동보다 국민학교 어린이들까지 참여할 수 있었던 점은 태권도의 범국민적 국기로써 변모를 더욱 더 일신할 수 있었고 태권도의인식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없다. 경기 제반면에서 어린이들의 순발력과 유연성에 對해서도 태권도의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한 전망을 내다보게 해 주었고 특히이번 대회에서 우승한 남대문국교 그리고 준우승팀인 무궁화국교 역시 비록 결승전에서 패하였지만 그 실력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았다고 본다. 그리고 준준결승에서 탈락은하였지만 창천국교 역시 상위권의 팀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3위를 한 부산 배정국교도 선수들의 전반적인 실력은 정준하였고 재동국교 역시 우수한 실력을 보여주었다. 特히 이번 대회에서 어린이들이 보여준 태권도인으로서의 투지 및 기상은 가히 높이 살만한 것이었고 아직 어리지만 태권도인으로써의 자세 역시 누구가 보아도 대견스러운 마음을 금할길 없었을 것이다. 과연 이 나라의 세싹인 어린이들이이러한 정신자세로써 자라서 발전 해나가는 이상 후세에 대한 우리의염원 역시 기대가 큰 바이다. 끝으로 이번 대회를 마치고 느낀 점은 어린이들이지만 경기에 대한 제반지식의 철저한 이해와 과학적인 이론의 근거에 대해서 도명확한 이해를 더욱더 불러 일으켜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았고 꼭 우승해야 한다는 일념도 좋지만 경기의 참가에 더욱더 의의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았다.

問) 韓國 訪問의 目的은?

答) 跆拳道 修練과 韓國의 跆拳道界 現況 分析이다—이 모든 것은 오스트랄리아에서의 同 스포츠 發展普及을 爲한 것이다.

問) 現段, 修練期間은? 그리고 오스트랄리아에서 활약하는 韓國跆拳道수련생의 數字는?

答) 조영대사범 지도로 4 年間수련했고 現段은 初段이다. 오스트랄리아에서의 韓國 跆拳道 수련생 數字를 正確히 알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곳 跆拳道界의 相互協調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同스포츠가 날로 人氣가 增大하고 있으며, 그 結果로 새로운 修練者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현재 오스트랄리아 全域을 통해 約 2천명의 수련생이 있는 것으로 推定된다.

問) 오스트랄리아에는 日本 가라데도 上陸했는지?

答) 그렇다, 가라데가 오스트랄리아에 확립된 것은 이미 12년째가 되며, 따라서 强한 발판을 갖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태권도의 挑戰을 받을 것이다.

1972년에는 가라데의 大家라는 사람이 오스트랄리아에 방문, 오스트랄리아 全國 가라데 선수권대회를 주관한 적도 있다. 오스트랄리아에는 여러 派의 일본 가라데가 그곳 전역에 많은 道場을 차리고 있다.

그러나 태권도의 技術이 점차 인정받으면서, 태권도는 이미 확립된 가라데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問) 跆拳道의 어떤點이 가라데보다 越等하다고 보는가?

答) 태권도 기술은 速度와 힘의 原則을 갖고 있으며, 기존의 가라데보다 훨씬 다양한 足技가 있다

問) 오스트랄리아에 태권도 선수권

An Evaluation of Tae Kwon Do World By A Blue-Eyed Aussie

濠洲跆拳道修練生이 본 韓國 跆拳道의 世界

Q :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to Korea?

A : To train Taekwondo and to evaluate Taekwondo scene in Korea in order to promote the sport in Austra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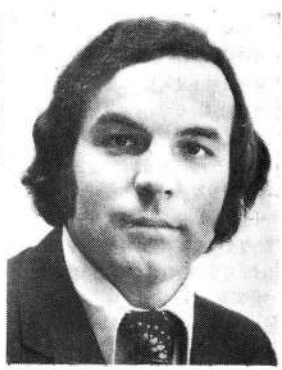
Q : What degree are you holding now in Taekwondo? And how long have you trained the sport? How many Taekwondo trainees are there in Australia?

A : I trained Taekwondo for four years under instructor Mr. Yong Tai Choi. I'm first dan, The number of Taekwondo trainees is difficult to elaborate because of the lack of cooperation amongst Taekwondo circles. But it is certain that the sport is increasing in popularity and as a result new students are being introduced day by day. There are roughly 2,000 in the whole Australia.

Q : What about Japanese Karate in Austalia?

A : Yes, Karate became established in Australia some 12 years ago, and

앤드루·마크·세니어, 當年 26歲의 獨身 青年, 오스트렐리어에서태어나, 모나슈大學에서 法學을 專攻했다. 現住所는 오스트렐리아 빅토리어·뉴콤, 글렌번 街 58番地, 身長은 5피트 8인치, 體重 175파운드 현직 法律家이다.



TAEKWONDO INTERVIEW with Andrew Mark Senia

앤드루·세니어 君 會見記

大會도 열린바 있는지?

答) 1973年 오스트랄리아 멜보른에서 태권도선수권大會가 열렸었다 그러나 館의 派閥때문에 몇몇 道場만 참가했다. 진정한 의미의 선수권 대회라기 보다는 두 道場間의 行事였다는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問) 이러한 狀況에 對한 貴下의 意見은?

答) 그토록 멋진 스포츠「태권도」로서, 이런 사태에 놓여있다는 것은 한심한 노릇이라 본다.

이 스포츠를 진흥시키고,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태권도 그룹의 統合이 있어야 한다. 태권도가 보다 건전하게成長하려면 館통합이 100%필수적이다.

태권도 지도자들이 그들의 私的利益이냐? 아니면 태권도전반의 스포츠냐? 중 兩者擇一을 할때가 왔다고 본다. 또한 이들중 스포츠쪽의 採擇했을 경우, 個人的인 利益은 自動的으로 따를 것이다.

問) 태권도를 수련하게된 動機는?

答) 나는 처음 멜보른所在모나슈大學校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고 오스트랄리아에 드디어 高度의肉

◇…編輯者註 : 世界 跆拳道의 宗主國인 韓國의 名聲과 權威가 世界跆拳道
◇…聯盟總裁에 大韓跆拳道協會 會長이 選出됨과 아울러, 國技院 金雲龍
◇…院長의 總力「跆拳道 世界 스포츠化」캠페인의 序幕과 함께 本格化되
◇…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는 事實이다.
◇…近間 世界 跆拳道의 메카로 알려진 韓國을 向해 巡禮의 天路歷程을
◇…밟는 隊列이 壁眼의 西歐 青年에서 中國 日本을 爲始한 東南亞의 武
◇…道의 본고장에서 까지 殺到하고 있다.
◇…멀리 南太平洋 南岸의 오스트렐리아의 青年이자 그곳의 法律家(法學
◇…學士 및 碩士 : Barrister & Solictor:26歲)인 앤드루·마크·세니어
◇…(Andrew Mark Senia)君 역시 跆拳道의 精과 粹의 探求를 爲해 멀리
◇…韓國에의 旅路에 올랐다.
◇…세니어君의 6週間 메카巡禮의 歷程이 始作된 것은 1973年 10月 3日.
◇…本「跆拳道」誌 인터뷰어인 筆者는 11月初 세니어君을 그가 修練中인
◇…草洞 所在 韓國體育館에서 만났다.
◇…西歐人 혹은 西洋文化에 깊숙히 몸과 정신이 배었으면서도, 東洋 武
◇…術과 文物에의 鄕愁에의 追求가 땀에 배인 道服에서 歷歷히 發見할수
◇…있는 筆者는 서슴치 않고 세니어君과의 인터뷰를 即席에서 提議했다
◇…다음은 세니어君과의 인터뷰 內容으로, 비록 跆拳道에는 初年生(修練
◇…4年에 現段初段)인 그이나, 跆拳道 宗主國人이 平素 發見할 수 없는
◇…예리한 科學的 觀察力을 內包하고 있어, 本誌에 揭載하는 바이다.

▒ ▒ ▒

has a strong foot-hold which will be challenged by Taekwondo in the near future. Their master visited Australia and presided over an Australian national championships. There are many Karate schools with many dojangs throughout the country. However as Taekwondo techniques became more and more appreciated, Taekwondo will be a great threat to the established Karate.

Q : What do you think is the reason Taekwondo is more appreciated than Karate?

A : The Taekwondo techniques involve the speed-power-principle and also There are more kick techniqees than established karate.

Q : Was there a Taekwondo championships ever held in Australia?

A : There was one in Melbourne Australia in 1972, But due to school factionalism only some Taekwondo schools participated. It was more of a event between two Taekwondo schools in Melbourne rather than being a real championships.

Q :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A : I think this is a despicable situation to have for such a marvellous sport. In order to promote the sport and Amaintain its integrity there should be unification amongst various Taekwondo groups. If the sport is to grow in a healthy way, unification is absolutely essential. The time has come for Taekwondo leaders to choose between their own interest and the sport of the Taekwondo in general. I believe if the sport is chosen, benefit to individuals will follow automatically,

體的 및 精神的 調和뿐 아니라, 科學과 哲學을 갖추고 있는 스포츠가 등장했다는 點에 크게 關心이 이끌렸다.

나에게 이點은 르네쌍스·맨(復興人間), 즉 藝術 哲學, 科學 및 肉體등 많은 分野에 定盤을 기하려 노력하는 人間으로서의 挑戰을 提供해 주었다.

問) 태권도 수련과 바른 法律家 生活과 차질이 있지 않은지?

答) 勿論, 이스포츠 수련이 나의本職의 스케줄과 차질이 생길때가 많다. 問題는 수련시간을 내는데 있다. 그러나 태권도가 나의 人格形成과 肉體的 건전을 爲해 갖추고 있는 價値를 인정하면 무척 重要한 까닭에 나는 어떻게라도 시간을 내어 수련한다. 그리고 實際로도 태권도 수련은 내 일과 人生에 많은 利點을 제공해 주고 있다.

問) 태권도 宗主國 한국의 인상은?

答) 인상이라 하면, 평소 期待하고 있던 생각을 더욱 굳혀주었다 는 點이다. 即 韓國의 태권도인들은 훨씬 기술에 뛰어나고, 世界 어느 國家보다도 우월한 修練方法을 갖고 있다는 點이다. 그러나 施設面에서 보면 世界水準에 미달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跆拳道 宗主國으로서의 韓國의 位置가 挑戰받을 것 같은 생각도 든다. 韓國動亂 및 越南 戰爭을 통해 태권도는 外國 특히 美國에도 전파되었다. 아마 美國에는 이미 3백여명의 韓國人 사범이 활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要因은美國의 科學, 資本 그리고 資源과 연결된다면 —韓國 태권도계가 完全統合을 보고 이미 빠른 速度로 擴張되는 태권도에 스스로 對備하지 않는 限—태권도의 將來는 美國이 支配하게 되는 結果를 招來할 것이다.

나는 現在를 跆拳道 史上 결정적 時期라고 본다. 왜냐하면 태권도가 韓國이나 外國에서 이처럼 빠른 速度로 人氣를 높인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韓國의 태권도지도자들이 修行하는 일들은 앞으로올 긴 將來의 태권도 운명에 영향을 줄 것이다.

問) 韓國 태권도계 현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答) 韓國이 必要로 하는 것은 資金과 機構라고 본다. 첫번째 문제로서 金雲龍會長이 韓國을 根源으로 하며 韓國의 傳統과 文化의 一部인 태권도의 진흥을 통해 全

『나는 처음 멜본 모나슈大學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고 濠洲에 드디어 高度의 心身의 調和뿐아니라 固有의 科學性과 哲學을 갖추고 있는 스포츠가 등장했다는 點에 크게 관심이 이끌렸다. 나에게 이것은 르네상스·맨(復興人間) 즉, 예술철학, 科學 및 體育등 많은 分野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 努力하는 人間으로서의 挑戰을 마련해주었다』

Q : What attracted you first to Taekwondo?

A : I first saw Taekwondo demonstrated at Monash University in Melbourne, I became extremely interested because here at last in Australia was a sport that not only combined the highest physical and mental coordination, but also had a science and philosophy all of its own. To me this represented a challenge of the renaissance man, a man who strives for perfection in many things including art, philosophy, science and body.

Q : Don't you find the training of Taekwondo conflict with your profession?

A : Yes, the sport does conflict often with my work. The problem is finding the time to trai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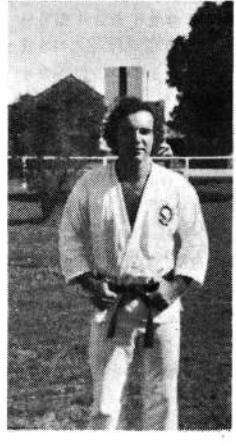
However, because the sport is so important to me and because I realize its value both to my character and physical well-being, I make it the time for Taekwondo.

Q : What was your impression of Korea, the mother nation of Taekwondo?

A : My impression only reinforced what I had expected that Taekwondo practitioners in Korea are much more skillful and have superior training methods in comparison to the rest of the world.

Facilities, however, are poor, and below world standard. I can envisage that as time goes by Korea's position as the No.1 Taekwondo country

앤드루·마크·세니어君의 태권도 수련광경——
오스트랄리어道場에서



世界에 友誼를 넓히는 利點을 看破한 點이 무척 반가운 일이다.

또한 世界跆拳道選手權大會를 주최한 것은 장래에 많은 유익한 부수 효과를 가져올 현명한 움직임이었다.

大韓跆拳道協會나 世界跆拳道聯盟의 任員 및 사범들을 外部世界에 파견하는 것 또한 장기적으로 보아선 경제적으로도 건전한 움직임이다.

問) 해외의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관전한 경험이 있는가?

答) 지난 1973年 8月 런던에서 열린 英國跆拳道선수권대회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英國역시 韓國에서 볼 수 있는 태권도에 대한 현대적 접근을 터득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사실, 英國태권도대회 우승자의 기술의 경우에 한해서는 오늘날의 한국의 현대적 태권도의 기술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다.

問) 外國에서 한창 유행되는 쿵푸(中國 18技)영화의 붐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答) 그러한 영화는 오히려 同스포츠를 爲해선 害롭다고 본다. 왜냐하면 쿵푸영화를 보고 그 스포츠를 배운 사람들은 결국 속임을 당한 기분을 느낄 것이며 쿵푸道場을 다시는 찾지 않을 것이기때문이다. 순수성(正直性)을 지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스포츠는 外國에 소개될 때는 올바른 매너를 통해야만 될 것이다 이말은 훌륭한 人格과 또한 충분한 敎育을 겸비한 사범들이 외국에 파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진지한 사범像이란 技術의 大家일뿐 아니라 자기가 방문하는 나라의 풍습과 文化에 올바로 적응해야하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포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人格은 물론 心

in the world will be challenged.

But the Korean and Vietnam wars have been instrumental in introducing Taekwondo to the outside world and in particular to the U.S. I think at present there are 300 Korean instructors in the U.S. This factor combined with the U.S. science, capital, and resources will result in the U.S taking over control of Taekwondo, unless Korean Taekwonde circles unify and prepare themselves for the expansion of the sport which is already increasing in rate day by day.

I see this as a crucial period in the history of Taekwodo, because the sport has increased in popularity at such a fast rate both in Korea and in foreign countries.

What Korean Taekwondo leaders do now will influence the sport for many years to come.

Q : How will you sum up your evaluation of Korean Taekwondo scene?

A : What Korea needs is fund and organization As to the first, I'm glad to see that president Kim Un Yong has seen the benefit of spreading good-will thnoughout the world by promoting this sport, which after all originated in Korea and is part of Korean tradition and culture. To sponsor the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was a good move which will have beneficial side effects.

Dispatching both officials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and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and instructors to the outside world is alse a move which in the long term will prove economically sound.

Q : Have you ever watched Taekwondo championships held in other countries?

A : Yes. I watched British Taekwondo Championships in great Britain when I was in London Sept. 1973.

And I found that even Britain has not learned this scientific approach to Taekwondo.

And in fact the winner's of that competition was the technique which most closely resembles the modern Korean Taekondo.

Q : What do you think about the current Congfu film craze?

A : I think it is detrimental to the sport. Because those who flock to congfu dojangs led by the fantasies of those films will, eventually, feel cheated when they find out it is not what it should be. Keeping integrity is of the utmost importance. A sport should be introduced into foreign countries in the right manner. By this I mean that instructors of good character and good education should be sent to foreign

『宗主國 韓國의 태권도인들은 기술에서 칠씬 뛰어나고 世界 어느 國家보다 우월한 修練方法을 갖고 있으나, 수련 施設면에서 보면 世界水準 未達이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태권도 宗主國으로서의 韓國의 位置가 挑戰받을 것이며, 많은 韓國人 사범이 활약중인 美國의 科學, 資本 그리고 資源과 合勢, 태권도의 장래를 美國이 支配하게 되는 結果를 초래할지도 모르며, 韓國의 지도자는 이點에 對備해야 할 것이다…』

Photo Topics
在美跆拳道사범들

7천 5백 여平方 피트의 초현대식 맘모드 태권도장이 한국인 金龍吉사범에 의해 美國 로즈·앤절레스(1146 노스·버몬트·애비뉴)에 개관 되었다. 이 자리에는 세계연방조직 확대 차 미국을 순방중인협회 자문위원 노병직선생과 在美(로즈앤절레스)태권도 사범 김창박, 정준, 이기룡 이용태, 육병진, 이종국, 정대웅등 다수가 함께 모여 한국 고유 무술의 정수를 화려하게 수놓았다(1973年 11月 3日 開舘式 기념촬영).

身 및 기술을 開發하기 위해 스포츠를 사용하는 一個 人間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問)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희망은?

答) 앞으로 오스트랄리아에 돌아가 오스트랄리아 태권도협회의 구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고 싶다.
또 제2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는 오트랄리아 대표팀을 出戰시킬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나의 희망이다. 이點에도 여러 分派間의 신임과 協調를 얻는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장애일 것으로 생각된다.

問) 오랜 對話 감사하다. 幸運을 빈다.

答) 감사하다.

countries.

The type of person who is not only a master of his art but can also integrate with customs and culture of the country he finds himself in. He should not be seen as a man to be feared with power to kill but as an only human being that uses the sport to develop his character, mind and physical technique.

Q : Finally will you please reveal your plans and hopes?

A : I want to return to Austratlia and begin moves for an Australian Taekwondo Association.

It is my hope that Australia can furnish a team for the next Taekwondo championships.

I see my biggest stumbling block in obtaining the confidence and cooperation of diiferent factions.

Q : Thank you for the interview. Please keep up the good work

A : Thank you.

Tae Kwon Do
Films
As
Seen by
Film
Critic

▶ 隨筆 : 武術映畵와 跆拳道

跆拳道 映畵에의 期待

林 英
〈映畵評論家〉

최근의 중국영화를 통한 인기도는 李小龍이 王羽를 누르는듯 하다. 李小龍이 손과 발을 쓰는 태권도 형식에 비해 王羽는 칼과 같은 도구도 함께 쓰는 18기 형식으로팔고 있다.

王羽의 18기 형식은 말하자면 올림픽에서 데카슬론으로 불리우는, 10종경기의 무술판으로 보아도 될것같다. 이것은 형식이 다채로워 구경하기에 좋고, 또 그 무술은 제대로만 마스터한다면 그 이상 강할것도 없을것 같다.

그런데 李小龍의 태권도 형식 영화가 더 인기가 있는것은, 그의 싸우는 방식이 몹시 실제에 가깝기때문일 것이다.

「나는 발로 차야 할때는 실제로 발로 찬다」고 李小龍이 말했다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의 영화가 현실감을 보다 많이 주는데 비해, 王羽를 비롯한 다른 무술 영화들은, 너무 황당무계하다는점에 李小龍영화의 성공의 비밀이 있을 것같다.

아무데나 거의 만원을 이루는 극장으로 李小龍이나 王羽를 구경하러 가기는 가지만, 한편으로는 지극히 불만스럽다.

이들 영화들은 끝까지 보게 하는 재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 재미란, 몹시 싸구려 재미이기 때문이다. 구경은 가지만 몹시 싸구려 재미라는 점에서는 한때 극장가를 휩쓸었던 소위 마카로니·웨스턴의 어딘지 쓸쓸한 싸구려 재미와 일맥상통하는데가 있다.

반드시 비제의 서부극이라야 좋만 다는 것보다도, 그 마카로니 웨스턴들에게는 오직 자극을 주기 위한 반짝하는 재미로만 엮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재미는 심히 얄팍한 것이다. 말하자면 중국 무술영화들도 그러한 얄팍한 재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보고나서 싸구려라는 여운을 남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영화가 얄팍한 재미밖에 없다고하여 李小龍이나 王羽까지를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말하면 마카로니·웨스턴에서 후랑크·네로니 크린트·이스트우드라는 스타들이 탄생한것처럼 그

武術 영화 촬영 장면

들도 때맞추어 부는 바람을 타고나타 난 스타들에 불과한 것이다. 스타란 많아서 나쁠것이 없고 또 필요한 것이고 만들수 있다면 만들어도 좋은 것이다.

그런데 영화속에서 가장 강한 사나이가 한국인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오드·죠브라는 작자다. 골드핑거의 보디·가드역을 한 오드·죠브는 배우가 일본천구였기 때문에 일본인처럼, 되어 있지만, 이안·플레밍의 원작소설에서는 명확히, 한국인으로 되어 있다.

이상한 녀석을 한국인이라고 좋아한다고 웃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소설이나 영화에서 오드·죠브처럼 강한 사나이가 나타났던적은 없는 것이다.

오드·죠브는 어찌나 강한지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쩔수 없어서 영화에서는 감전사 하는것으로 되어 있지만 원작 소설에서는 역시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처치할 방법이

Hong Kong Martial Art Film Producers Busy Scouting Korean Tae Kwon Do Play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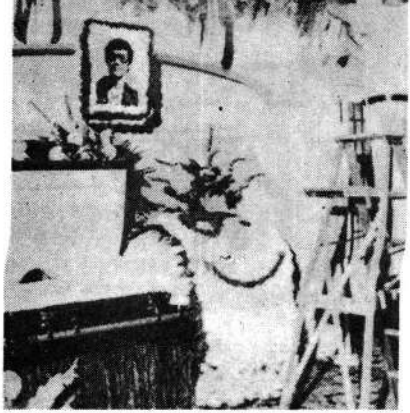
韓國 跆拳道 有段者 홍콩 武術 映畵 出演붐

○…王羽의 劍術영화붐을 이어, 李小龍의 태권도 영화와 함께 영화가는 武術 영화붐이 마치 하나의 流行처럼일고 있다. 美國內에서는 中國 18技를 등장시키는 소위 「쿵푸」의 TV연속극까지 나타나, 크나큰 시청율을 올 리고 있다.

이 같이 東洋 武道를 主題로 한 일련의 영화붐 뒤에는 한국인 스타(영화감독)이나 한국인 태권도 사범의 기술진이 실질상 리드해 오고 있으나, 홍콩의 제작자들에 의해 제작되어 歐美에선 흔히 「中國武術映畵」로 통하고 있다.

그러나 무술영화 제작의 본산인 홍콩의 제작자들은 이번 李小龍의 죽음 이후 보다큰 視線을 한국 태권도인에게 돌리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미 히트 영화 「죽음의 다섯손가락」 (Five Fingers of Death)을 비롯한 수많은 武道영화 감독으로 홍콩뿐 아니라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는 국인 鄭昌和 감독에 이어, 계속 한국 태권도인이 홍콩제작자에 의해 스카우트 되어가고 있다.



★ ★ ★

中國製 태권도 영화로서 인기를 모으던 홍콩 태권도인겸 영화배우 李小龍(藝名 브루스·리)의 돌연한 죽음은 무술 영화 팬사이에 큰 화제를 일으킨바 있다. 한국 태권도 연마를 통해 얻어진 단단한 체구와 건강에도 불구하고 32세의 젊은 나이에 꺼져간 그의 장례식은 홍콩에서 수많은팬의 비명속에 치뤄졌다. (사진右)

또한 李小龍이 담긴 銅製棺의 매장식은 시아들에서 있었는데, 그로부터 다시 태권도를 배운 영화배우 스티브·매퀸, 제임스·코번을 비롯한 태권도 제자와 친우들이 참가했다. (사진 左)

國內에선 이미 申榮均, 朴魯植, 方秀一 싶지어 白金女도 태권영화 출연

○…홍콩 현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 태권도 사범 김규팔, 김상옥 등이 主演級으로 기용되었다는 소식외에도 프랑스 파리에서 태권도를 지도하던 이관용 사범이 홍콩에서 역시 출연을 서두르고 있고, 그외에도 女性 有段者인 辛善得양을 비롯한 많은 國內유단자들의 홍콩 輸出이 論議되며 일부는 이미 渡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事實上 태권도 액션영화의 제작의 효시가 홍콩이 아니라 한국인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미 수년전부터 국내 영화스타 申榮均이 태권도를 직접수련, (李炳路氏 사사) 스크린에서 묘기를 발휘한 것을 비롯, 朴魯植, 方秀一, 심지어 白金女까지 액션영화 출연을 위한 태권도를 수련했던 사실(李敎允씨 시사은 그리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홍콩의 태권도 武術영화붐에 여파로 오히려 中國 18技(쿵푸가 美國大衆들 사이에 새로운 인기를 얻고 있음은 태권도계에도 적지않은 플젯점을 안겨준다.

첫째가 우리 固有의 태권도의 기술이 18技로 잘못 오해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과연 흥미를 목적으로한 쇼的인 연기가 無知한 大衆들에게 전달되면서, 태권도의 本質과 정신이 잘못 받아 드려진다는 점이다.

없어서, 비행기속에서 격투 하다가 부숴진 창문으로 빨려나가 대기속으로 사라져 버린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언·플레밍이라는 작가는 어디서 한국인에 대한 그러한 아이디아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골드핑거중의 오드·죠브를 천하무적이기는 하지만 몹시 조폭하고 원시적인 놈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힘이 천하장사에 태권도를 하는 오드·죠브는, 같은 사람끼리 대결해서는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007손·코네리조차 거인에게 달려드는 어린애처럼 나가 떨어지고는 하다가, 감전이라는 위계로 겨우 이기는 것이다.

007영화에서 007이 이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007 전 시리즈를 통하여 오드·죠브만큼 강한 천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아마 우리는, 만족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007영화 이전의 서양액숀영화라면 대체적으로 권투형식의 싸움밖에 없었는데, 007이 나오면서 태권도 형식의 격투법이 등장했고, 007 아류로 나타나는 OSS117이니 나폴레온 솔로등이 다 격투에는 태권도 형식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도 손을 주로 사용하지 발을 아직 사용하지 않는것은 그들의 격투법이 태권도 형식의 흉내만 냈지, 실지로 도입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국에서 만든 무술영화도 몇편 봤는데, 충분히 재미 있고 또 앞으로 보다 재미있게 발전시킬수 있는 소지도 엿보인다.

그러나 무술의 기법에만 치우친 나머지 영화로서의 재미를 소홀히 했고, 또 그 무술자체도 현실과

는 동떨어진 말하자면 王羽영화의 아류에나 속한다고 해야할 약점들이 있었다.

그리고 치명적인 것은 한국에서 만들으면, 정정당당히 한국제라는 것을 내 걸지않고 얼핏 보기에는 중국제처럼 우물우물 한데가 있었던 점이다. 영화이름이며 배우 이름들이 어딘지 중국식이고, 선문광고의 분위기가 또한 중국식인 것이다 전부가 다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러한 속임수 비슷한 것을 쓰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기왕에 제작비라는헌금을 들여 만들바에는 정면에서 전력투구하여 만들일이지, 중국 무술영화에 물탄듯 만들어 엉거주춤 내놓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것은 다 몇년전 얘기로 요새는 그런 현상은 없는것같다 그리고 최근 金默감독이 격투영화를 하나 만든 것이 신문 광고에 눈에 띄었었는데, 구경을 하지 못해 한마디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다.

이 金默이라는 감독은 한국최초로 타임잉이 정확한 액숀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으로, 사실 태권도 형식의 영화를 만들었다면 한번 맘껏 보고 싶은 사람이다.

한국영화계가 근년에 시들하여 도대체 활기가 없는데 그러한무기력한 분위기를 태권도 형식의 격투영화로 타개해 봄직도 한 것이다

특히 王羽계열 이후에 李小龍이 붐을이르키는 것을 보면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남이 성공하니까, 흉내나 내보자는 아이더어가 아니고, 문제는 지극히 간단하이, 그 李小龍영화보다 재미나는 것을 만들면 될 뿐인것이다.

태권도 종주국에서 李小龍 형식의 영화를 못만든다는 것은 웃으운

小林寺 승려들의 수련 광경

일이며, 잘 꾸며진 얘기와 스타로 키울만한 태권도 선수와, 액숀의타임잉계산이 정확한 감독과, 그리고 제작자만 있으면 되는것이다. 전연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다.

다만, 잘 꾸며진 얘기란 태권도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혼한 것이 아니며, 李小龍이의 화려한 연기력(?)을 능가 할만한 연기력을 가진 태권도선수가 그렇게 쉽게 있지는 않을것이라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한때 TBC-TV의 만화와 소년中央의 부록만화로 나오던 타이거 마스크라는 한국 베슬러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쪽나라 것을 들여다가 그대로 한국인 베슬러로 바꾸어 내보냈던 것 같지만 몹시 재미있었다. 만화이기는 하면서도 얘기에 대단한 설득력이 있어서 어른도 같이 볼수 있는 만화임이 분명했다

이 타이거·마스크는 베슬러의얘기지만 그 기본이되는 줄거리 자체는 모든 격투법에 적용될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소년잡지들중에는 지극히 약한 그림과, 약한 얘기로 한국태권선수가 국제무대에 나가, 권투나 레슬링등 다른 격투법을 가진 서양사람들과 싸우는 만화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제법 재미있다.

즉 애써서 얘기를 찾든가 꾸미지 않아도 소년잡지 한구석에 실려있는 만화들도 충분히 좋은 원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에는 만화를 소재로하여 만들어 성공한 영화가 많다는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한국일보에 번역연재되는 불론디 만화도 TV시리즈가 되어 AFKN TV에서 때로 나오는수가 있는데, 보통 드라마로도 제법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이다.

태권도 교실

TAE KWON DO ILLUSTRATED

기술심의회

태백 太白

TAE-BAEK

단군 개국신화와 더불어 잊을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피의 인연이며 일의 근원이고 역사 전통의 시작인 태백은 『밝산』이란 뜻으로 태양숭배의 사상에서 기인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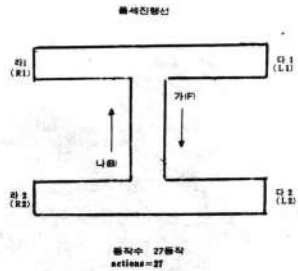
밝은 곳은 곧신성함과 광배웅자한 뜻으로 해석되어 오늘의 백두산을 의미 한다고 하겠다.

백두산은 실로 우리민족의 태반이요. 핏줄이며 민족의 상징이다.

연무 진행선은 『工』자로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개국신화를 뜻했고 동작에 움직이는 형태는 몸통막기를 주로 적용 하였다.

이 품세의 중요한 생명은 민첩한 속도를 빙어 태백의 광막웅려한 사상을 정신과 육체에 응용 시킨 것이다.

태 백 (太 白)



제 1 동작
1. 왼발을 옮겨 "다1" 방향을 향하여
2. 범서기
3. 손날 해쳐 아래막기

제 2 동작
1. 오른발 앞차고 내딛어
2. 오른 앞굽이 ("다1" 방향)
3. 몸통 두번 지르기

제 3 동작
1. 왼발축 몸을 오른편으로 돌리며 오른발을 "라1" 방향으로 옮겨
2. 범서기
3. 손날 헤쳐아래막기

First Action;
1. Move the left foot toward "L-1"
2. Tiger stance
3. Below block with scattered hand-knife

Second Action;
1. Execute a front-kick with the right foot and step forward
2. Take a right forward bending posture
3. Execute double punchs on middle point with right and left fists

Third Action;
1. Rotating on the left pivot and move the right foot toward "R-1"
2. Left tiger stance
3. Below block with scattered hand-knife

3

4

5

6

제 4 동작

1. 왼발 앞차고 내딛어
2. 왼앞굽이
3. 몸통 두번 지르기

제 5 동작

1. 오른발 축왼발을 "가" 방향으로 옮겨
2. 왼앞굽이
3. 제비품 목치기

제 6 동작

1. 오른손 안으로 엎어 잡아끌며 오른발이 앞으로 한걸음 나아가
2. 오른 앞굽이
3. 몸통 바로 지르기

제 7 동작

1. 왼손 펴 안으로 엎어 잡아끌며 왼발이 한걸음 나아가
2. 왼 발굽이
3. 몸통 바로지르기

Fourth Action;

1. Make front kick and step forward with left foot
2. Take left forward bending posture
3. Exectue double punch on middle point

Fifth Action;

1. Turn left foot toward "F" on right pivot and step forward with left foot
2. Take left forward bending posture
3. Execute simlutaneoussly high block with left knife-hand and strike on neck with right inner knife-hand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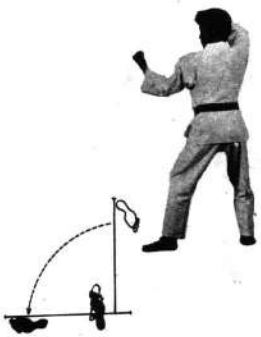
Sixth Action;

1. Pulilng in the upside down hand and step forawrd the right foot
2. Take a right forward bending posture
3. Give straight punch on middle point with left hand

Seventh Action;

1. Left foot step forward and pulling in the open palm of upside down
2. Take a left forward bend posture
3. Give straight punch on middle point with right hand

10



9

11

제 8 동작

1. 오른 손펴 안으로 엎어 잡아 끌며 오른발이 한걸음 나가
2. 오른앞굽이
3. 몸통 바로 지르기 —기합—

제 9 동작

1. 오른발 축 몸을 왼편으로 돌리며 왼발 라2" 방향으로 옮겨
2. 오른 뒷굽이
3. 금강 몸통막기

자10동작

1. 제자리
2. 서기 그대로
3. 당기고 턱치기

제11동작

1. 제자리
2. 서기 그대로
3. 왼주먹 옆지르기

제12동작

1. 왼발 들어 올려
2. 오른 학다리 서기 ("라2" 방향)
3. 오른 돌쩌귀

제13동작

1. 왼발 옆차고 내딛어
2. 왼 앞굽이 ("라2" 방향)
3. 오른 팔굽 표적치기

제14동작

1. 왼발 끌어 오른발에 붙이고 오른발이 "다2" 방향으로 나가
2. 왼 뒷굽이
3. 금강 몸통 막기

Eighth Action;

1. Right foot step forward and pulling in the left hand of upside down
2. Take right forward bending posture
3. Give straight punch on middle point with left fist and yell!

Nineth Action;

1. Rotating on right pivot and step forward to "R-2"
2. Take right back ward bending posture
3. Keumkang body blocking; Execute simultaneously high block with right outer wrist and

12

13

14

middle point block with left inner wrist.

Tenth Action;

1. Take similar posture as Action No 9-1
2. Take similar posture as action No 9-2
3. Pull left fist toward shoulder and punch the jaw with right fist

Eleventh Action;

1. Take similar posture as action No 9-1
2. Take similar posture as action No 9-2
3. Execute punch on side of body with left fist

Twelveth Action;

1. Lift up the left foot to be ready for side kick
2. Crane stance (lift up right foot toward "R 2")
3. Right hinge stance (Place the both fists at the right waist and fists put together up and down

Thirteenth Action;

1. Execute simultaneously side kick with left foot and fist and step forward
2. Take left forward bending posture toward "R2"
3. Execute right elbow strike to the left palm

Fourteenth Action;

1. Draw in the left foot to the right foot and take right foot step forward to "L-2"
2. Take left backward bending posture
3. Keumkang body blocking (Execute simultaneously high block with left outer wrist and middle point block with right inner wrist)

제15동작
1. 제자리
2. 서기 그대로
3. 당기고 턱치기

제16동작
1. 제자리
2. 서기 그대로
3. 오른 주먹 옆지르기

제17동작
1. 오른발 들어 올려
2. (왼)학다리 서기("다2" 방향)
3. 왼 돌쩌귀

제18동작
1. 오른발 옆차고 내 딛어
2. 오른 앞굽이 ("다2" 방향)
3. 왼 팔굽 표적치기

제19동작
1. 오른발 끌어 왼발에 붙이고 "왼" 방향으로 나가
2. 오른 뒷굽이
3. 손날 몸통막기

제20동작
1. 오른발이 한걸음 나가
2. 오른 앞굽이
3. 찌르기

Fifteenth Action;
1. **Similar posture as Action No 14-1**
2. **Similar posture as Action No 14-2**
3. **Pull the right fist to the left shoulder and execute a jaw-punch with the left fist**

Sixteenth Action;
1. **Similar posture as Action No 14-1**
2. **Simila posture as Action No 14-2**
3. **Execute a punch on side of the body with right fist**

18

20

19

Seventeenth Action;

1. Be ready for side kick with right foot and keep left foot still
2. Left crane stance toward "L-2"
3. Place both fists at the left waist and the right first on the left fist

Eighteenth Action;

1. Execute side kick with the right foot fist and step forward
2. Take right forward bending stance toward "R-2"
3. Stretch the left elbow and strike the right palm

Nineteenth Action;

1. Draw the right foot to left foot and step forward to "B"
2. Take right backward bending stance
3. Execute middle point block with left knife hand

Twentieth Action;

1. Take a right foot step forward
2. Take a right forward bending stance
3. Execute a downward block with the left palm-heel and rights pear hand thrust. The back of left hand comes under the right elbow.

제21동작

1. 몸돌려 손목 밑으로 빼기하고 오른발 축 몸을 왼쪽으로 돌리며 (360도) 왼발 ("나" 방으로 옮겨
2. 오른 뒷굽이
3. 왼 등주먹 얼굴 바깥치기.

제22동작

1. 오른발이 한걸음 나가
2. 오른 앞굽이
3. 몸통 반대 지르기 —기합—

제23동작

1. 오른발 축 몸 왼편으로 돌리며 왼발 "다1" 방향으로 옮겨
2. 왼 앞굽이
3. 가 위막기

제24동작

1. 오른발 앞차고 내 딛어
2. 오른 앞굽이
3. 몸통 두번 지르기

제25동작

1. 왼발 축으로 몸 오른편으로 돌리며 오른발 "라1" 방향으로 옮겨
2. 오른 앞굽이
3. 가위막기

Twenty-first Action;

1. **Turn around with pulling out the wrist 360° toward "F" and step forward**
2. **Take right backward bending stance**
3. **Execute an outer strike with head side of left fist**

Twenty-second Action;

1. **Take right foot step forward**
2. **Take right forward bending posture stance**
3. **Execute an opposite middle punch with the right fist and "YELL"**

Twententy-third Action;

1. Rotating on the right foot pivot toward "R-1" and step forward
2. Take left forward bending stance
3. Execute simultaneously low block with the left wrist and a middle block with right wrist

Twenti-fourth Action;

1. Execute front kick with right foot and step forward R-1
2. Take right forward bending posture stance
3. Execute double punch on the middle point with right and left fist

Twenty-fyfth Action;

1. Rotating on the left foot pivot toward right and move right foot toward "L"
2. Take right forward bending posture stance
3. Execute simultaneously low block with right wrist and middle bolck with left wrist

27

26

26동작

1. 왼발 앞차고 내 딛어
2. 왼 앞굽이
3. 몸통 두번 지르기

제27동작

"그만" 왼발 끌어 준비 자세로

Twenty-sixth Action;

1. Execute front kick with left foot and step forward
2. Take left forward bending posture stance
3. Execute double punch on middle point with left and right haud.

Twenty-seventh Action

Geuman: Draw left foot and take ready st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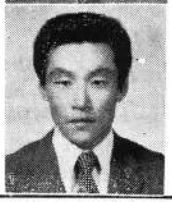
學校跆拳道巡禮

全校生이 跆拳道 修練

풍생중학교의

사범 강선장

이승수 교장



강선장 사범

경기도 성남시에 자리잡고 있는 풍생중학교에 태권도의 기압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은 8개월전인 4월부터 이다. 지금은 완전한 태권도 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서 1,200명 전교생이 2급의 실력을 고루 갖추어 있고 유단자 25명을 배출했다. 운동장 곳곳에 50여개의 주먹단련대와 각교실에는 풋팔밀에 깨끗이 정돈된 도복들이 사방으로 걸려있어 엄숙한 분위기마져 감돈다. 이 학교를 찾는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것이지만 교문을 들어서기가 바쁘게 『태권』하고 경례하는 학생들의 구호소리가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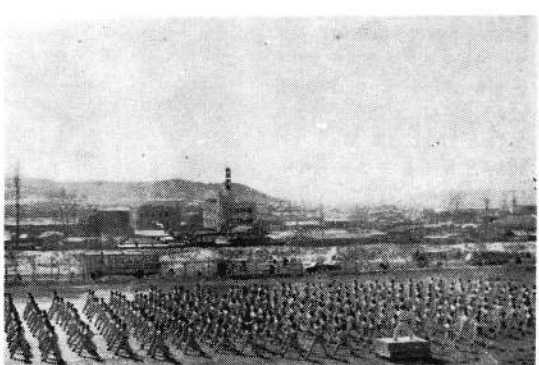
많은 시범과 시합을 보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련을 구태어 보고 싶지 않았지만 어쩐지 보고싶은 충동에 강 선장사범께 부탁했더니 지금은 수업시간이라 곤란하지만 교장선생님께 이야기 해보자고 한다.

방송실에서 『전교생 도복 착용하고 운동장 집합!』 소리가 스피커에서 떨어 지면서부터 운동할 수 있는 상태까지 집합시간이 5분 46초이다 어린 중학생들이지만 정신무장이 잘된 군인들을 능가할 정도이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와 동시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칠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10월유신과 새마을정신이 여기서 울어 나오듯 싶다. 간단한 수련이 끝나고 한 학생에게 무엇때문에 태권도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국가가 우리 태권도인을 필요로 할 때 서슴치 않고 앞장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이승수 교장선생님은, 『태권도를 교기로 택하게된 동기는 학교의 여의치 않는 재정 사정에 부합되고 학생전체가 참여하여 협동정신을 심어 줄 수 있는데 제일 적합한 운동이라고 생각 했고 무도의 정신으로 교육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실시했던 것이 상상외로 몸과 마음과 정신이 잘 부합되어 학생들의 교육에 100% 효과가 있으며 갈수록 인격이 도야되고

【p. 7에 계속】



全校生 1,200명이 2級 이상의 실력을 고루 갖추고 있고, 유단자 25명을 배출한 풍생중학교에는 교직원 전원의 태권도 수련까지 계획하고 있다.

스포츠·맛사지와 急所應急處置法

Sports Massage and First-Aid Treatment of Vital Spots

▷……運動과 맛사아지는 陰陽과 같은 것임으로 태권도 선……◁
▷……수에게도 맛사아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스포츠……◁
▷……맛사아지의 효과는 피부를 손가락으로 압박함으로서……◁
▷……혈액이나 임파의 순환이 원만하며 신진대사가 좋아지……◁
▷……고 筋力, 持久力, 柔軟性, 순발력 속도등이 育成되는……◁
▷……데……◁

崔 泰 鎭
(崔스포츠·맛사지·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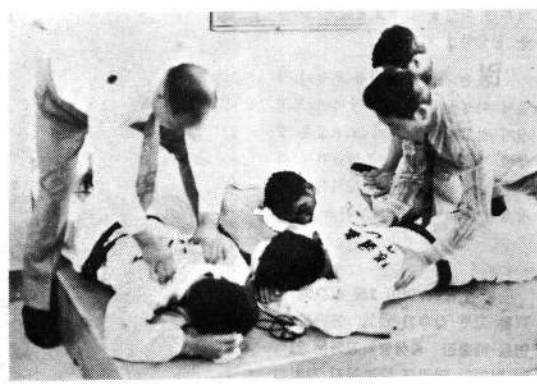
□스포츠맛사지란?

元來 스포츠는 心身의 힘을 極度로 發揮하여 빠르고 强한 忍耐力을 다투는 運動이므로 最高度의 能力을 發揮해서 勝利하기 위한 練習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運動과 맛사지는 陰陽과 같은 것이므로 跆拳道選手에게도 맛사지는 必須不可缺한 要素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맛사지란 人類가 未開北代에서 體係的인 治療法은 存在하지 않았지만 아픔을 느끼고 筋肉이 굳어지는 感을 느낄 때 아무런 醫學的인 知識이 없어도 그 部分을 누르고 문지르는 行爲를 했고 現在도 우리 周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一種의 人間 本能的인 行爲로서 널리 행하여 지고 있는 것이다. 即, 例를 들면 우리가 추운 겨울 날 아침에 손이 시리고 굳어올 때 우리들은 自身도 모르는 사이에 양손을 부비며 摩擦熱을 發生시켜 손을 녹히는 때가 많이 있다. 이는 손가락 끝에 조그마한 筋肉을 통하는 가느다란 神經이 추위 때문에 血液循環이 圓滑하지 못하고 그 機能이 둔해져 筋肉이 自律的으로 움직이지를 않는 原因 때문이다. 이러할때, 우리들은 양손을 부비며 이때 생긴 摩擦熱로 인해 血液循環이 잘 되고 근육의 움직임도 圓滑해 진다. 그러면 跆拳道 選手의 경우를 一例를 들면 태권도 선수 역시 重量을 調節하는 競技이므로 重量을 過大하게 빼는 選手는 腓腹筋이 갑자기 단단해 지면서 아플 때가 있다. 이를 옛말에 『쥐가 난다』고 한다. 이러할때 우리들은 腓腹筋을 잡고 누르며, 근육을 문질러 풀어주면 一定時間後에 단단해 졌던 근육이 풀어지고 原狀復歸하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스포츠 맛사지의 效果은 皮膚를 손가락으로 壓迫하므로서 血液이나 淋巴의 循環이 圓滿하며 新陳代謝도 좋아지고 疲勞의 原因이 되고



있는 老廢物도 除去하여 營養分과 酸素供給도 잘 되어 身體의 여러가지 組織 特히 筋肉과 神經系는 새로운 힘을 주고 筋肉의 疲勞를 除去하여 運動神經을 높히며 活發하게 筋肉이 運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스포츠 맛사—지로 育成되는 要素는 筋力, 持久力, 柔軟性瞬發力 速度等이다.

스포츠 맛사—지의 語源은 불란서 말이다. 오늘 날까지 유럽에서 發達하였다. 유럽의 스포츠 맛사지式과 東洋의 스포츠 맛사지의 差異點이 있을 것으로 보며, 特히 우리 韓國 사람의 體質에 맞도록 硏究하여본 結果유럽의 사람들은 成長過程과 우리 東洋사람의 成長過程이 다르므로 差異가 있다고 본다. 유럽 사람은 肉食으로 成長하나 東洋은 菜食이므로 脂肪性이 源泉이 되어 있는 것과 脂肪質 過多에 따라 다르므로 스포츠 맛사지에서도 유럽式과 우리 韓國式의 맛사—지에서 强함과 弱함의 差異가 있다.

스포츠 맛사—지가 일반 스포츠에 많이 使用되고 있는 術技를 分類해 보면

1. 스웨덴式 스포츠 맛사—지
2. 독일 式 스포츠 맛사—지
3. 폴란드式 스포츠 맛사—지 등이 있다.

그러나 어느 맛사—지라도 大同小異 하며 特別한 差異를 찾아 볼 수가 없다. 特色이 있다면,

1. 스웨덴式은 두드리는 것을 주로하고
2. 독일式은 두드리는 것보다 문지르는 것을 주로 한다.
3. 폴란드式은 위의 두 방식을 綜合한 것이다.

스포츠 맛사—지를 하는 時機,

1. 競技前 스포츠 맛사—지.
2. 競技中 스포츠 맛사—지.
3. 競技後 스포츠 맛사—지.
4. 中間日 스포츠 맛사—지.

이렇게 4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跆拳道 選手에게는 速度와 瞬發力과 柔軟性, 持久力이 必要하며 筋肉의 要素는 요근, 복직근, 대전근, 승모근, 전완근, 총지신근이 重要한 筋肉이다.

1. 競技前스포츠 맛사—지

몸 全體를 손바닥 또는 손등으로 弱하게 문지르며, 몸에 熱이 날때까지 繼續하면 血液循環이 잘되고 氣分이 상쾌해진다.

跆拳道 경기에 主動作 筋肉과 關節의 맛사—지를 약하게 하며 基本手技의 여러가지 手法을 利用하여 근육과 관절의 細部까지 맛사—지를 하면 좋다.

手技는 弱하게 문지르며 비비고 흔드는등 짧은 時間에 행하며, 문지른다. 단, 두드리는 것은 근육의 疲勞를 줌으로 禁物이다.

2. 競技中 스포츠 맛사—지

競技中 짧은 時間을 利用하는 맛사지며 경기중에 腓腹筋이나 또는 타박상으로 인한 急性으로 오는 근육의 피로를 除去하는 것이 目的이며 그 急所만을 부드럽게 빠르게 손바닥으로 문지르며 맛사지를 해주면 效果가 크다.

3. 競技後 스포츠 맛사—지

경기후는 가볍게 목욕을 하는등 경한 疲勞를 除去하는 全身 맛사지를 한다. 단, 强하게 하면 그 다음날 試合에 疲勞가 오므로 오히려 試合에 지장을 招來하는 結果가 된다.

4. 中間日 스포츠 맛사—지

競技中에 心身의 긴장을 풀고 全身의 疲勞를 除去 또는 잠시동안 휴식하는 데서 오는 脂肪性 過多를 除去하는 뜻으로 행한다. 물론 全

사진은 시합전 스포츠 맛사아지 광경. 제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당시의 中國팀 코치와 함께 筆者가 촬악하고 있다.

←급소를 맞고 다운되었을때 위로부터 응급치료와 의사를 부른다. 들고나가는 자세등이다.

身 맛사지가 좋으며 特히 自己가 專門으로 하는 競技의 主動作筋肉과 主動作 關節에 가벼운 外傷등 아픔이 일어나지 않게 自己가 自己를 맛사지 하면 좋다.

□急所應急處治法

A. 겨루기중 顔面을 맞아서 넘어졌을때

1) 우선 넘어져 있는 選手를 바로 눕혀가지고 뇌진탕의 與否를 確認한다.

2) 選手의 頭部를 뒤로 가볍게 조금 제치는 듯하게 눕혀 눈을 열어 본다.

3) 눈동자로서 가릴 수 있으며 가벼운 衝擊을 받았다고 認定될 시에는 우선 護具를 풀어주고 한 사람은 머리 위쪽에 앉아서 엄지 손가락은 눈옆 약 1cm 되는 곳의 곡점을 누르고 3, 4, 5手脂로서 머리뒤 중앙점에서 좌우 1cm되는 곳의 연수점을 자연스럽게 呼吸을 맞춰가며 垂直으로 천천히 눌러 아픔을 느낄 程度가 되면 停止 했다가 천천히 놓는 것을 反復 한다.

4) 제법 심한 衝擊으로 팔, 다리가 筋力痙攣을 일으키는 수도 있으므로 이때는 위와 같은 方法으로 救急을 하며 제3자가 손과 발을 맛사지와 同時에 구부렸다 폈다해 준다.

5) 만일 選手가 뇌진탕으로 認定이 되었을 때는 위와 같은 姿勢로 選手를 흔들거나 일으키지 말고 들것이나 安定시키는 姿勢로 迅速히 綜合病院으로 옮겨야 한다.

(跆拳道 試合은 技術을 硏磨한 選手이므로 創設된 이래 13년간 競技場을 지켜보아온 筆者로서는 뇌

진탕으로 不祥事가 난 例는 불수 없었음을 記述하고 싶다.)

B. 복직근(명치급소)를 맞았을때

競技中 복직근(명치)를 맞아서 넘어졌을 때 選手는 명치급소를 잡고 몸姿勢가 앞으로 구부리며 呼吸이 不自由스러워지고 심할 경우에는 새우같이 꼬부라지며 앞으로 넘어지는 수가 있다.

1) 선수를 바른자세로 눕혀가지고 (새우처럼 꼬부라진 선수를 바로 눕히려면 아픔으로 인해 바로 눕지 못하므로 대전근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쳐서 발을 펴게 한다.

2) 우선 護具를 벗긴 다음 시술자는 그 選手의 배 위에 올라선 자세로 양송을 수평으로 복직근 상단에서 부터 심장이 가까운 部分을 呼吸에 맞춰가며 아래에서 위로 人工呼吸을 시켜준다.

3) 선수가 어느程度 呼吸機能이 原狀復歸가 되었다고 認定이 될시에는 일으켜서 앉은 姿勢로하여 선수의 등뒤에서 척추제 7, 8번 사이에 무릎을 대고 양손을 선수거드랑이 안으로 집어 넣어 뒤로 제쳤다 앞으로 구부렸다하는 人工呼吸을 시킨다.

4) 만일 선수가 명치를 맞아서 넘어졌을 때는 立體姿勢를 해가지고 무리하게 등을 두드리거나 뒤로 제치는 식으로 하면 선수에게 不祥事가 생길 우려성이 많으므로 절대 禁物이다.

5) 인공호흡이 끝나고 선수가 정신이 들면 복직근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맛사지를 해주므로 회복이 훨씬 빠르다.

『次號에 계속 맛사지 實習』

Photo Topics

괌島의 한국 사범들 지동주 6단과 김정규 3단

常夏의 섬, 南太平洋의 괌島에도 한국의 태권도가 日本의 가라데를 누르고 태권도 인구를 늘리고 있다.

한국의 지동주 사범(6단) 및 김정규 사범(3단)이 바로 괌태권 도 보급의 주역들.

사진은 괌에서 8개의 도장을 경영 400명의 태권도 수련생을 거느리는 이들 사범들의 심사 광경(上) 및 괌 태권도 협회 임원들(下).

跆拳道를 위한 體力强化

柳 根 碩
(理學博士・漢陽大學校體育大學長)

A Study of Developing Physical Strength for Tae Kwon Do

앞서 말한 바와 같이 强度・時間・頻度의 適正度는 體力要素 强化에 重要한 것으로 訓練處方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要素들이다. 獨逸의 스포오츠科學者인 헤팅가(Hettinger)는 最大筋力의 40~50%의 힘을 쓰게 하는 强度이면, 筋肉이 계속하여 收縮하는 時間을 45~60秒를 가져야 訓練의 効果를 얻는다고 主張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最大筋力(이를테면 힘을 다해서 90kg을 겨우 들어올렸다면, 그것이 最大筋力이 된다.)이 90kg이라고 한다면 그 最大筋力의 40~50%는 45~60kg가 되고 이 무게가 되는 重量을 强度로 해서 들어올릴 때, 들어올려서 곧 내리는 것이 아니라 60~70%秒 가량 들고, 서 있어야 効果가 크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와 같은 强度가 커지면 커질수록 筋肉持續收縮 時間은 짧아도 좋다. 即最大筋力의 60—70%인 境遇에는 時間이 18~30秒 程度로 足하고, 80~90%가 되면 不過 12~18秒로 滿足하여, 100%(即, 겨우 한번 들을 수 있는 程度의 무게)를 든다고 한다면 6~10秒로 足하다. 그런데 여기서 注意할 點은 어떠한 運動을 하면, 어떠한 筋肉이·發達하고, 그 筋肉이 움직일 때는 어떠한 姿勢에서, 앞서 말한 時間 만큼 동을 지속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點을 알기에는 많은 知識을 갖추어야 하므로, 訓練處方을 만들 때는 專門家와 議論하는 것이 重要하다. 一線에서 體力强化를 한다고, 訓練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므로 특히 이 點을 일러두고 싶다.

그런데 筋力을 强化하는 方法이 또 다른 方法의 하나는 靜的 訓練이라는 것이다. 이 方法은 人體의 關節을 굽혔다 폈다 하지 않고, 뻗친 姿勢로 운동하는 方法이다. 다시 말하면 運動具를 固定시켜 놓고 거기다 힘을 쓰도록 한다. 例를 들면 말뚝을 박아 놓고 거기에 줄을 맸다고 한다면, 이 줄을 당기는 운동을 하거나, 또 기둥을 민다든가 하는 따위가 靜的 訓練法이다.

이때 作用筋은 힘을 쓰게되나 겉모양은 조금도 變함이 없이, 運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靜的 訓練이란 이름이 붙게 되었다(겉모양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러한 方法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最大筋力의 몇 %를 强度로 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持續時間을 決定짓게 되고, 强度와 時間의 關係는 앞의 것과 같다. 이것을 알기 쉽게 表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圖式參照)

그러나, 위에 말한 動的 訓練方法이나, 靜的 訓練方法의 어느 쪽이든 간에 每日 訓練하는 것이 筋力 增强에는 第一 좋은 方法이 된다. 그러나, 試合의 〈씨즌〉이 되면은 技術과 作戰 練習으로 時間을 많이 뺏기는 통에, 實際로 筋力 增强의 訓練을 소홀하게 하는 수가 많다. 이럴 때는 每日 筋力 訓練을 할 수 없게 되므로 1週日에 3回 程度는 하도록 努力해야 한다. 왜냐하면, 5日에 1回式 訓練을 하면 每日 한데 比해서 半이 增加되고, 2週에 1回 訓練을 하면은 하나마나하고 効果는 아무 것도 없게 된다.

특히 일러 두고 싶은 것은, 많은 指導者들이 冬節에 基礎體力 訓練을 시켜 놓고, 試合期가 되면은 技術만을 練習시키는 데, 이것은 잘못 된 方法이다. 그 理由로서, 筋力이나, 體力要素는 한번 공을 들

여 强化해 놓으면, 그것이 마치 積金이나 定期預金을 한것 같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독에 물을 담아 놓은 것 같아서, 時間이 갈수록 증발해서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물을 퍼다 넣듯이, 訓練을 해서 筋力을 恒常 채워줘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圖表〉

트레닝의 强度 (最大筋力에 對한 %)	트레닝에 필요한 시간 (筋收縮持續時間, 秒)	
	最 低 限 界	適 正 限 界
40 ～ 60	15～50	45～60
60 ～ 70	6 ～10	18～30
80 ～ 90	4 ～ 6	12～18
100	2 ～ 3	6 ～10

3. 筋力訓練과 年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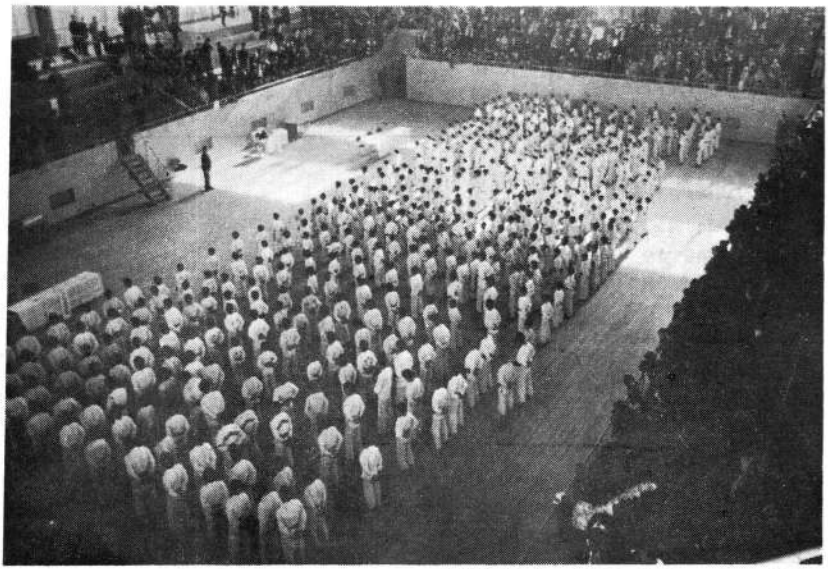
筋力을 增强한다는 것은 年齡이 많거나 적거나 效驗을 갖게 되지만 年齡에 따라서, 그 效果率은 많은 差異를 갖는다. 男子는 20歲 前後가 제일 筋力增强訓練의 效驗이 크고, 女子에서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그러나, 男女를 莫論하고 15歲 前後부터 筋力의 訓練이 效力을 보이나 女子의 增加率은 男子에 比하면 微微한 것으로 半以下도 미치지 못한다. 그 原因은 男性홀몬과 女性홀몬의 差異에서 오는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女子에게도 男性홀몬을 注射하면 效果를 볼 수 있으나, 副作用이 있어 피하고 있다.

男子의 힘이 最强으로 될 수 있는 筋力 訓練 可能性은 22歲～25歲라고 學者들은 믿고 있고, 30歲가 가까워지면은 訓練의 效果도 조금씩 始作한다고 한다.

그러나, 40～50歲가 넘어도 젊은 사람이 效驗을 얻는 것보다는 못하다 할지라도 筋力이 불어나는 것은 틀림 없는 事實이다. 大體로 젊은 이가 10이 增强된다면 이들은 5가 불어난다는 것이 定說이다.

다음 號에는 〈스피이드〉에 關한 이야기와, speed를 向上시키는 訓練法을 紹介하기로 하겠다.

昇段 審査 合格者



1973年 5月 10日 以後

▲ 第53回 73. 5. 13 <初段>

31689 서정호 31690 임성호 31691 黃金出
13692 李判根 31693 윤영철 31694 김종일
31695 金萬淳 31696 이석원 31697 林基榮
31698 문상욱 31699 嚴泰勳 31700 趙星哲
31701 李南洙 31702 申面植 31703 梁承五
31704 任國植 31705 이윤영 31706 梁東一
31707 韓相貴 31708 金東春 31709 백명순
31710 김경수 31711 李在亨 31712 朴先沃
31713 金容鎭 31714 韓東均 31715 劉永敏
31716 김금석 31717 남창구 31718 嚴基鎭
31719 전상덕 31720 李在鴻 31721 金向文
31722 손종철 31723 백영수 31724 金台衡
31725 강봉식 31726 金炳國 31727 金喜男
31728 이종관 31729 장봉찬 31730 李榮儀
31731 강신철 31732 李澤春 31733 徐一碩
31734 吳明燮 31735 趙 頌 31736 陳載善
31737 안봉철 31738 이우락 31739 朴炳山
31740 魯安植 31741 李明洙 31742 元周찬
31743 李相龍 31744 洪淳哲 31745 朴時炳
31746 文鍾澈 31747 池昌燮 31748 劉松昱
31749 李福洙 31750 宋珍根 31751 김성진
31752 林閏石 31753 陣逢講 31754 서정주
31755 장윤성 31756 崔聖昊 31757 池正曉
31758 李昌培 31759 金慶柱 31760 尹玉相
31761 崔 賢 31762 金汶昊 31763 申東郁
31764 金光善 31765 烏永根 31766 金吉虎
31767 최세철 31768 李正根 31769 權在碩
31770 表大石 31771 함상원 31772 李錄熙
31773 卓雙勇 31774 김동원 31775 金在官
31776 李鍾官 31777 朴殷洙 31778 金在吉
31779 李載漢 31780 梁光玉 31781 洪益鍾
31782 文基科 31783 崔任珍 31784 文德永
31785 盧興植 31786 崔根洙 31787 제기봉
31788 元鍾勳 31789 허양욱 31790 白基春
31791 여은주 31792 蔡熙甲 31793 金普永
31794 朴鍾賢 31795 이윤천 31796 千國煥

31797 홍성원 31798 朴奭準 31799 박성권
31800 李秉寬 31801 김영찬 31802 金榮俊
31803 이형구 31804 朴鍾連 31805 金一培
31806 崔炳容 31807 吳白虎 31808 高炳奎
31809 梁完承 31810 宋純燁 31811 金允圭
31812 이건승 31813 金承出 31814 오재도
31815 金炅燮 31816 成聖五 31817 林永善
31818 林運植 31819 노재석 31820 金丙柱
31821 李萬萬 31822 李柱浥 31823 洪顯善
31824 李澄坤 31825 李炳洙 31826 徐炳漢
31827 裵有天 31828 趙漢正 31829 金正煥
31830 鄭星天 31831 田敬洞 31832 朴正熙
31833 曺成煥 31834 鄭淳鍾 31835 朴亨一
31836 이봉영 31837 金毅憲 31838 정형복
31839 崔光哲 31840 黃永晩 31841 崔德俊
31842 이정규 31843 南春浩 31844 金斗洙
31845 韓慶學 31846 정순덕 31847 呂相美
31848 姜仁子 31849 成眞姬 31850 崔鍾淑
31851 金恩柱 31852 崔允淑 31853 최종숙
31854 Raymond Charles Smith
31855 Daniel Sappinyton
31856 Bozarth6 Forrest E
31857 Robert & Palermo
31858 Charles D. Brahep
31859 Albert H. Williams
31860 Michael Scott Caquat
31861 Alcares, garg Thomas
31862 George Ris In
31863 William John Cook Fester
31864 閔慶植 31865 金宗完 31866 申相來
31867 成亨澤 31868 유세근 31869 朴承雲
31870 Watamabe Dauidm.
31871 Loomis Gregory
31872 Dohn D· Wilson
31873 崔甲千

경기 평택

31874 김봉선 31875 崔泰泳 31876 鄭寅植
31877 韓昌燁 31878 鄭基喆 31879 朴贊涉
31880 趙容讚 31881 李喜福 31882 尹廣鎬
31883 柳和馨 31884 高光雲 31885 韓寬玉
31886 朴起完 31887 배기석

충 남

31888 金孝鎭 31889 朴元錫 31890 朴仁浩
31891 이두흠 31892 심영길 31893 최맹희
31894 정시목 31895 김형석 31896 趙휘善
31897 李載永
31898 Robert A Frymire

육 사

31899 朴壽培 31900 劉英根 31901 李三龍
31902 李 炳 31903 裵鎭燮 31904 申壯均
31905 金顯錫 31906 高昌富 31907 具甲文
31908 崔文圭 31909 金德坤 31910 金泳萬
31911 徐丙日 31912 李鍾鎭 31913 金星哲
31914 金鍾英 31915 權行勳 31916 金有千
31917 洪仁浩 31918 鄭然秀 31919 韓在浩
31920 孔承九 31921 趙洞基 31922 李相河

▲ 경 북 73. 5. 20

31923 金演澤 31924 梁泰煥 31925 李贊炯
31926 金禹澈 31927 姜儀德 31918 金光龍
31929 안종식 31930 琴義樹 31931 안해영
31932 정규복 19333 안병도 31934 김영란
31935 卞明煥 31936 許泰烈 31937 朴永斌
31938 송용득 31939 崔明煥 31940 金昌漢
31941 朴鎭鎬 31942 朴男秀 31943 金憲泰
31944 李承汶 31945 車容鎬 31946 조봉헌
31947 金炳馹 31948 崔榮成 31949 盧炳周
31950 조성국 31951 徐源百 31952 朴正春
31953 裵永泰 31954 朴 淳 31955 鄭尙和
31956 金龍高 31957 金辛國 31958 崔東烈
31959 盧炳來 31960 李元泰 31961 李京相
31962 白相大 31963 金龍海 31964 金炳春
31965 金相旬 31966 金子運 31967 권석일
31968 李成雨 31969 姜 .濟 31970 金載弼
31971 金鎭佑 31972 畢永生 31973 王啓昇
31974 周景國 31975 高東賢 31976 朴成九
31977 柳洛勳 31978 李成圭 31979 權永浩
31980 孫炳天 31981 姜榮植 31982 鄭壽元
31983 鄭錫文 31984 曺圭泓 31985 徐正道
31986 金光根 31987 황보태수 31988 李準炯
31989 梁富益 31990 마이클·일워드
31991 裵鎭英 31992 朴正協 31993 장명수
31994 손원섭 31995 박헌복 31996 홍봉순
31997 박순옥 31998 崔大淵 31999 金在熙
32000 조용태 32001 조병규 32002 李仁世
32003 朴昞和 32004 조용수 32005 金漢基
32006 陳相厚 32007 권영훈 32008 이기재

32009 鄭敏煥　32010 STEPHEN JOE
32011 LOYEE SHEUNG
32012 鄭基洛　32013 李隆茂

▲ 충 남(1973. 6. 6

32014 JOSEPH NIZIBIAN
32015 RICHAR D A. RALPH
32016 RICHARD WAYNE BRIT
32017 TEP, G, PATTS
32018 김성환　32019 김동엽　32020 김영배
32021 金基龍　32022 吳京根　32023 朴尙雲
32024 南炳熙　32025 南相奎　32026 李元勳
32027 李恒九　32028 김기삼　32029 서종운
32030 강대식　32031 김기석　32032 曺聖龍
32033 황동권　32034 朴贊泳　32035 李恒培
32036 朴成鎭

▲ 江 原 (1973. 6. 8)

32095 黃圭鉉　32096 오춘환　32097 金鍾坤
32098 高光鎭　32099 김순기　32100 최남일
32101 이응복　32102 金鎬鎭　32103 정병수
32104 강대성　32105 유영모　32106 최광희
32107 金東圭　32108 李東洙　32109 朴勇澈
32110 李尙敦　32111 李炳鎬　32112 안윤기
32113 주금옥　32114 박종수

▲ 육 사 (1973. 6. 29)

32115 楊在燮　32116 金榮柱　32117 金先基
32118 조현기　32119 李相吉　32120 韓基燁
32121 金顯宇　32122 조성열　32123 李承振
32124 安正寅　32125 河鳳辰　32126 趙啓善
32127 千萬鎬　32128 具仁根　32129 朴賢鎭
32130 朴기鳳　32131 朴甲道　32132 朴安敏
32133 황재찬　32134 鄭宗和　32135 車漢永
32136 田德圭　32137 李善俊　32138 具本榮
32139 朴在赫　32140 李明宰　32141 이육환
32142 尹鍾植　32143 金近泰　32144 吳廣鉉
32145 林鍾元　32146 印泗鎭　32147 崔善用
32148 李榮俊　32149 鄭鍾喆　*32150* 裵大造
32151 金東震　32152 鄭萬和　*32153* 鄭鍾烹
32154 千漢圭　32155 李明勳　32156 吳永植
32157 李起睦　32158 裵奉植　32159 安相潤
32160 姜在明　32161 張東明　32162 金奉鉉
32163 박경현　*32164* 권영박　32165 최병준
32166 朴泰根　32167 이석준　32168 황재준
32169 閔庚吉　32170 임동남　32171 朴桓圭
32172 權五奎　32173 金漢基　32174 李仁浩
32175 李鎭漢　32176 李秉烈　32177 李有斗

▲ 全 北 (1973. 7. 1)

32178 柳桂根　32179 白鎬鉉　32180 李興濬
32181 蘇奉鈺　32182 양문기　32183 최열우
32184 朱亨權
32185 Charles W. Beach
32186 Larry a Markwenas
32187 沈仁澤　32188 金東旭　32189 張貴善
32190 黃英周　32191 張玄玉　32192 尹永甲
32193 李德植　32194 李京宰　32195 李錫基
32196 조명찬　32197 李鍾暎　32198 김문식
32199 유영식　32200 유진선　32201 김성철
32202 조용화　32203 오재관　32204 김용대
32205 이상만　32206 김영운　32207 金林炅
32208 이시문　32209 임창근　32210 김원경
32211 이용구　32212 한병권　32213 송민재
32214 송기오　32215 한상원　32216 이철영
32217 장병천　32218 김철환　32219 김충검
32220 김창선　32221 최기식　32222 김경호
32223 유화인　32224 김재술　32225 안방욱
32226 김기홍　32227 박헌철　32228 吳允柱
32229 신인복　32230 김충헌　32231 박명수
32232 주광석　32233 박기동　32234 이정규
32235 SANTO WILLIAM
32236 SURACE HARRY ARITTIN

▲ 경 기(1973. 7. 6)

32237 許賢玉　32238 金玉分　32239 원강성
32240 金大鉉　32241 이병석　32242 정봉철
32243 宋忠孝　32244 장영환　32245 우경선
32246 MICHAEL C, CROSBY
32247 DERRER D, GRISHAN
32248 HA TCHER DEMIERTR
32249 MC, Intos Z. Jameseh
32250 全文基　32251 권승환　32252 신홍범
32253 최명수

▲ 전 남 (1973. 7. 6)

32254 李康大　32255 朴洪培　32256 주정오
32257 文成煥　32258 최무송　32259 홍성문
32260 文仲根　32261 신양호　32262 李奉日
32263 김혜랑　32264 김영래　32265 鄭成斗
32266 함경식　32267 柳貞錫　32268 朴鍾珉
32269 李在星　32270 李銅燮　32271 曺泳律

32272 고광희 32273 朴漢有 32274 金春鉉
32275 高在星 32276 박양배 32277 韓相晩
32278 裵榮根 32279 김병도 32280 박철호
32281 박순환 32282 이권헌 32283 李景教
32284 김양구 32285 黃信洪 32286 柳亨容
32287 姜鎭勳 32288 장홍용 32289 林尙炫
32290 奇京鎬 32291 權容澈 32292 金士鉉
32293 李民喆 32294 구자영 32295 盧京미
32296 손형근 32297 임행복 32298 金光浩
32299 李東連 32300 林完洙 32301 조광식
32302 고관주 32203 박만수 32304 오승열
32305 愼吉晟 32306 吳炳校 32307 曺○五
32309 문관수 32309 金鐵柱 32310 한석봉
32311 黃大煥 32312 李萬植 32313 신남식
32314 權基成 32315 梁源哲 32316 孔勝鎬
32317 柳在喆 32318 Astephen Melcher
32319 정홍성 32320 金在男 32321 방극송
32322 張致喆 32323 김장복 32324 安秉祐
32325 장창익 32326 白聖男 32327 박승배
32328 김주빈 32329 전병규 32330 조태일
32331 이명호 32332 吳憲鐸 32333 田炯培
32334 金鍾鎬 32335 邢正善 32336 金賢柱
32337 梁承保 32338 吳在澤 32339 신용철
32340 국정군 32341 김성국 32342 조희욱
32343 李平植 32344 朴顯昱 32345 유재정
32346 이강채 32347 李君夏 32348 최석주
32349 曺玟鉉 32350 崔浣榮 32351 朴海英
32352 임정일 32353 정정선 32354 梁昌承
32355 林春景 32356 최경일 32357 安亨燮
32358 백현팔 32359 박원묵 32360 金光範
32361 朴在柱 32362 金甲錫 32363 조홍성
32364 강대현 32365 오기주 32366 文貞鎬
32367 文玉出 32368 최종수 32369 주정노
32370 김은식

▲ 충 남 (73. 7. 8)

32371 權彰遠 32372 조영주 32373 鄭明來
32374 김동만 32375 李旻鍾 32376 吳乙泳
32377 鄭寨雄 32378 朴昌惠 32379 金吉煥
32380 金永秀 32381 鄭成權 32382 卞相厚
32383 윤욱중 32384 이명인 32385 金敬龕
32386 박동섭 32387 金大年 32388 정계섭
32389 金相鳳 32390 禹吉濬 32391 이강만
32392 김종의 32393 송재석 32394 강길섭
32395 金鎔煥 32396 정용현 32397 朴龍煥
32398 이항직 32399 박천규 32400 김현령
32401 崔鍾具 32402 徐溪勇

▲ 경 남 (7. 12)

32413 朴明信 32314 金容培 32415 金澤烈
32416 朴紀鎬 32417 具熙三 32418 유호연
32419 金환坤 32420 都龍煥 32421 김근학
32422 최석태 32423 朴益基 32424 劉相來
32425 鄭大植 32426 吳俊尙 32427 제용갑
32428 李成東 32429 金相根 32430 金鎬淵
32431 孔二錫 32432 李鍾穆 32433 유기언
32434 鄭成鑓 32435 황갑순

▲ 中 央 (7. 15)

32436 李在熙 32437 朴海東 32438 玄濟暎
32439 朴憲柱 32440 鄭丙哲 32441 李明源
32442 金財昶 32443 金鍾悟 32444 金學賢
32445 金鍾悟 32446 金濟甲 32447 朴喜燮
32443 조동국 32449 李光呈 32450 趙泰善
32451 金明奎 32452 崔昌洙 32453 李勝勳
32454 李仁榮 32455 李根鍾 32456 金基澤
32757 崔英範 32458 李鎭烈 32459 李哲熙
32460 文 浩 32461 吳世勳 32462 임영수
32463 李相喆 32464 朴炳旭 32465 金永喆
32466 姜恒久 32467 朴賢富 32468 金應烈
32469 李鍾興 32470 高光錫 32471 李長柱
32472 임승수 32473 宋門鎬 32474 劉恩讚
32475 李熙鎭 32476 崔滉天 32477 朴章熙
32478 林元植 32479 朴壽吉 32480 權五馨
32481 宋永默 32482 李春雨 32483 韓炳德
32484 조병일 32485 金柱成 32486 辛興善
32487 朴仁祿 32488 柳在暎 32489 민영춘
32490 鄭明植 32491 張基賢 32492 金允權
32493 文景鳳 32494 朴喆洙 32495 염정진
32496 韓奎鎬 32497 趙泳來 32498 孔鎭模
32499 李英俊 32500 金鍾寬 32501 朴春河
32502 鄭明鎭 32503 尹京河 32504 吳一昊
32505 金憲休 32506 韓忠熙 32507 李仁雲
32508 朴敬圭 32509 朴在錫 32510 金光鈴
32511 金東喜 32512 李建求 32513 陸大淑
32514 鄭元喜 32515 金讚衡 32516 金堯喆
32517 허진영 32518 安永民 32519 김응환
32520 郭泰琉 32521 李永敎 32522 任鍾彬
32523 全鍾淳 32524 姜泰圭 32525 千光烈

32526 金基培 32527 全宇潤 32528 金昌洙
32529 박중양 32530 姜永保 32531 최병철
32532 姜泰信 32533 박남규 32534 鄭春逢
32535 전희춘 32536 李聖熙 32537 張俊烈
32538 姜松遠 32539 金哲煥 32540 李采炯
32541 鄭德原 32542 안덕천 32543 김순태
32544 崔基榮 32545 吳永植 32546 김영식
32547 李在根 32548 吳東植 32549 車明源
32550 申煥澈 32551 沈載壹 32552 金演斗
32553 李相佑 32554 尹亨根 32555 朴勇來
32556 羅成雄 32557 오영욱 32558 孫聖煥
32559 崔容台 32560 李一成 32561 申鮮基
32562 文南吉 32563 崔成甲 32564 趙英蕭
32565 朴完洙 32556 黃圭鴻 32567 鄭光燮
32568 鄭遇權 32569 조석근 32567 李銀淑
32571 朴 熙 32572 정강식 32573 閔丙用
32574 장창수 32575 박귀영 32576 金聖獻
32577 許成龍 32578 延基淑 32579 崔英蓮
32580 李允子 32581 朴錦淑 32582 李英瀾
32583 宋君子

▲ 中 央 (73. 7. 15)

32584 Whitcomb Mark R.
32585 Marin A. Barrett
32586 Johnny L. Pressley
32587 Thomas H. Horton
32588 Clarence T. Freeman Jr
32589 Gutierrey G. Ricarte
32590 Quezada Eduardo
32591 William J. Slaughter
32592 James Jeffrey Curran
32593 백경희 32594 이홍영 32595 盧雲龍
32599 Keith Edward Banks
32597 James michael Riede
32598 최병업 32599 金鐵鎬 32600 金英鍾
32601 李丁太 32602 mark Bernolt
32605 蘇正烈 32606 Jvlio Alberto Camels
32607 성중현 32608 金建澤 32609 최광일
32610 mark Salvage 32612 Tang The Joung
32613 Rosqvio mqira 32614 John Weingust
32615 Johnnie R Davis

▲ 忠 北 (73. 7. 16)

32616 金昌燮 32617 이근태 32618 안광석
32619 尹鍾憲 32620 柳重錫 32621 원승주
32622 이영길 32623 오규진 32624 김만균
32625 전진녀 32626 이광수 32627 이충사
32628 韓弘燮 32626 최원발 32630 鄭순혁
32631 임영복 32632 심철구 32633 정석영
32634 이복열 32635 김수용 32636 신은식
32637 김태욱 32638 노동열 32639 최병태
32640 김광배 32641 이원환 32642 서계완
32643 위효섭 32644 최대순
32645 Michael D. Bryant
32646 최영호 32647 김일우 32648 김희성
32649 선주순 32650 김태일 32651 조병길
32652 李德洙 32653 Peter Wallace
32654 이오형 32655 원경구 32656 신동준
32657 신광옥 32658 John E. maldne
32659 이주영 32660 송해종 32661 배두원
32662 최영식 32663 이관희 32664 최동선
32665 연구호 32666 김태룡 32667 皮先熙
32668 유태영 32669 송승원 32670 박만희
32671 申宗燮 32672 金根濟 32673 權炳道
32674 高千植 32675 김만수

▲ 경 기 (1973. 7. 17)

32676 장만교 32677 김창규 32678 이상재
32679 정용직 32680 李澤相 32681 李彰培
32682 정천희 32683 구재선 32684 강성철
32685 尹文鎭 32686 목춘식 32687 金東浩
32688 신상엽 32689 尹承基 32690 洪淳喆
32691 金學文 32692 연규선 32693 朴成烈
32694 黃雲千 32695 함종천 32696 安鎭憲
32697 Daniel Slrickland 32698 김형상
32699 林判洙 32700 康根權 32701 한만희
32702 이석구 32703 박성남 32704 이기종
32705 李氣瑞 32706 元永善 32707 임장선
32708 최종석 32709 조동열 32710 박춘기
32711 이진권 32712 김명준 32713 양성구
32714 장재복 32715 Jahn M. Little
32716 韓元善 32717 延正模 32718 吳炳雄
32719 조영식 32720 金榮周 32721 吳永貞
32722 金相禹 32723 崔鍾晃 32724 朴弼緖
32725 文賢吉 32726 한금자 32727 김대웅
32728 최희순 32729 최진화 32730 崔原碩
32731 李淸淵 32732 박영준 32733 孔之澤
32734 崔鍾福 32735 李輔允

▲ 忠 南

32736 이방휘 32737 李東春 32738 이청원
32739 김환수 32740 구봉충 32741 李鍾玉
32742 홍성원 32743 노재일 32744 정성윤
32745 노재선 32746 유완철 32747 정태은
32748 남상섭 32749 이종태 32750 김기환
32751 孫炳泰 32752 조태현 32753 조규종
32754 조익환 32755 임양수 32756 임상화
32757 이인기 32758 강만구 32759 강완식
32760 황석만 32761 양재구 32762 이진택
32763 이종승 32764 최덕호 32765 조성욱
32766 장석주 32767 임태석 32768 곽우훈
32769 金明在 32770 송기인 32771 김경수
32772 박광순 32773 李在敦 32774 종홍열
32775 이영섭 32776 이은하 32777 임백우
32778 박성하 32779 고용호 32780 姚旭明
32781 조원종 32782 우병빈 32783 朴昌來
32784 장안택 32785 김정섭 32786 한갑수
32787 성창모 32788 정해상

▲ 경 북

32789 安洙賢 32790 장복만 32791 金 鎬
32792 林二圭 32793 임영전 32794 전중배
32795 安仁水 32796 崔憲秀 32797 權泰默

▲ 全 南

32798 崔允洙 32799 김진철 32800 文日錫
32801 鄭鉉植 32802 蔡貴錫 32803 金昌坤
32804 林 松 32805 申鍾洙 32806 김봉화
32807 鄭東在 32808 白大燮 32809 朴炳周
32810 朴完盛 32811 李奇東 32812 李基建

▲ 忠 南

32813 김병규 32814 이송우 32815 문길상
32816 金時煥 32817 金正錫 32818 李瑞九
32819 印承煥 32820 鄭경鎬 32821 吳鍾化
32822 尹汝勳 32823 鄭光永

▲ 忠 南 (73. 7. 22)

32824 金榮珏 32825 李相培 32826 朴商哲
32827 李尙烈 32828 徐廷元 32829 金正煥
32830 鄭萬春 32831 徐大錫 32832 金時中

▲ 釜 山(73. 8. 19)

32894 朴孝奎 32895 崔南三 32896 조영록
32897 鄭甲煥 32898 梁和幸 32899 조수덕
32900 김금란 32901 주은주 32902 황보군
32903 김영국 32904 김윤덕 32905 김옥상
32906 김영진 32907 추상곤 32908 석만권
32909 한태희 32910 李斗根 32911 신대철
32912 박영봉 32913 Danny F. Debuttes Jr.
32914 裵貞淡 32915 李在萬 32916 金성權
32917 權道鉉 32918 車載洙 32919 최재식
32920 朴鍾九 32921 朴碩煥 32922 이귀희
32923 김도근 32924 김영중 32925 金東植
32926 宋均植 32927 최귀자 32928 김영식
32929 申文浩 32930 秋外植 32931 안병운
32932 李元宰 32933 柳長秀 32934 郭永勳
32935 朴相泰 32936 金三碩 32937 許順和
32938 李元燮 32939 安鍾亮 32940 尹台宰
32941 崔圭明 32942 金炳夏 32943 金鍾三
32944 黃鐵性 32945 朱丙元 32946 金基洪
32947 徐在千 32948 許在根 32949 魏承洙
32950 金尙憲 32951 정동일 32952 심후범
32953 金鍾七 32954 朱泰鎬 32955 金佳顯
32956 鄭承浩 32957 南康珠 32958 張善萬
32959 孫東鉉 32960 辛今烈 32961 權泰洪
32962 成一燮 32963 河德植 32964 成厚慶
32965 朴泰永 32966 金俊日 32967 裵鎬光
32968 崔賢起 32969 禹昌明 32970 金仁淑
32971 金龍範 32972 朴文浩 32973 이홍석
32974 배영수 32975 이정희 32976 변영범
32977 조창용 32978 문성태 32979 김영진
32980 이재욱 32981 권영주 32982 조갑재
32983 김진억 32984 조영복 32985 김성열

▲ 濟 州 (73. 8. 19)

32990 金奎完 32991 金桂成 32992 邊安性
32993 吳行善 32994 高吉昭 32995 金淳富
32996 許光民 32997 金萬鎬 32998 姜榮根
32999 許京滿 33000 梁泰仲 33001 李東輝
33002 李熙福 33003 張逢侯 33004 金承萬
33005 金榮道 33006 金東範 33007 李容根
33008 姜基周 33009 玄春植 33010 李春植
33011 高榮珍 33012 李秉根 33013 洪承哲
33014 김창식 33015 康京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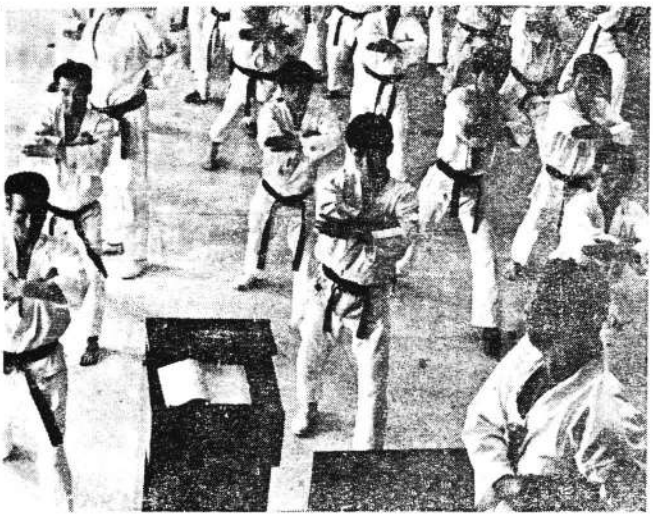
第六期 指導者 敎育修了者 名 單

◇……제6기 태권도 지도자 강습회가 1973년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6일간에 걸쳐 1백 30명이 참석한 가운……◇
◇……데 태권도의 전당인 국기원에서 성대히 막을 내렸다……◇
◇……지도자 교육은 태권도 지도층에 있는 4단 이상자 사……◇
◇……범들의 자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체육이론과 시사문……◇
◇……제 용어 및 기본 심판규정 구급법 경기규정 및 품세……◇
◇……등 광범위한 강좌를 실시하고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
◇……은 사범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필기시험을 치루었……◇
◇……다. 이에 합격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1046 申允吉　1047 朴弘陽　1048 李甲培　1049 董舜榮
1050 金容好　1051 吳鉉承　1052 金南雄　1053 李　奎
1054 田星烈　1055 安龍仁　1056 禹相柱　1057 權寧佑
1058 金德振　1059 方東淳　1060 玄鍾泰　1061 安秉勳
1067 李成鎬　1068 安健淳　1069 裵元根　1070 具永椿
1071 金弘剛　1072 洪敬萬　1074 林鍾範　1075 李萬遠
1076 羅華連　1079 趙　訓　1080 權五鍾　1081 鄭泰甲
1082 李　英　1083 金光一　1084 尹五老　1085 高昌世
1086 李東敏　1087 令重英　1088 李鍾燮　1089 陳鍾鎬
1090 韓聖秀　1091 李京明　1092 金顯坤　1093 金滿坤
1094 朴　云　1095 徐光錫　1096 金定寬　1097 郭柄五
1098 金成鎭　1099 金昌陽　1100 朴玉植　1101 鄭學亮
1102 李敎植　1103 尹泰云　1104 金龍浩　1105 張福根
106 權寧雲　1107 蘇正燮　1108 洪性天　1109 安鍾厚

1110 李色雨　1111 崔永哲　1112 崔裕煥　1113 李宗源
1114 崔榮植　1115 孔錫琓　1116 文漢鍾　1117 申柱植
1118 具弼鎬　1119 鄭興洙　1120 鄭健雄　1121 曺充君
1122 劉景運　1123 姜聲吉　1124 金長植　1126 俞炳洪
1127 李承雨　1128 鄭昌熙　1129 李承憲　1131 金基勇
1132 徐廷寬　1133 崔聖煥　1134 卜鎭興　1135 金道喜
1136 李起東　1138 李文榮　1139 安熙均　1140 盧天弘
1141 徐漢哲　1143 李茂億　1144 金永根　1145 徐成寬
1146 羅成坤　1147 吳南安　1148 金德男　1149 曺喜鎔
1151 金泰振　1152 李大炯　1154 李宗學　1155 朴仁坤
1156 吳明根　1157 李昌晃　1158 金炳圭　1159 金鍾基
1161 千長壽　1162 白錫鎭　1163 宋俊永　1164 辛在益
1165 黃致炫　1166 李相均　1167 崔政茂　1168 盧吉永
1169 崔光植　1170 許英男　(110名)

第6期 指導者 敎育을 받고 있는 修講生들



第 1 期 特別練修者 名單

1 崔宗秀	2 姜光淳	3 李壯行	4 李中植	71 韓正欽	72 鄭學讚	73 金永泰	74 林正鎬
5 金倖道	6 洪性武	7 田壬秀	8 高國煥	75 崔大澤	76 陳富九	77 金鍾重	78 李星男
9 高時植	10 朴應用	11 洪性準	12 殷冀杓	79 朴圭哲	80 金龍吉	81 張龍甲	82 崔菊煥
13 柳昌植	14 李奉洙	15 李在田	16 宋寅杰	83 孫漢哲	84 郭炳五	85 姜龍植	87 李康浩
17 郭鎬起	18 朴起陽	19 姜明熙	20 許敬烈	88 盧永烈	89 高成薰	90 孫香盛	91 金昌陽
21 金景洙	22 李榮根	23 朴在洪	24 金應洙	92 金官洙	93 李棟雨	94 蘇昌烈	95 田順九
25 孔敬澈	26 申民洙	27 吳炳千	28 金在和	96 盧永喆	97 朴玉植	98 申桂植	99 李和性
29 黃亨性	30 金興洙	31 禹英一	32 禹相柱	100 金承善	102 鄭光燮	103 李義亨	104 許成柱
33 金南龍	34 朴久英	36 吳 松	37 張淳權	105 유병석	106 李洪基	107 金世林	108 朴聖琳
39 張愚錫	40 崔客準	41 金赫培	42 金顯鐵	109 鄭浩根	110 李承求	111 李宗鎬	112 姜明喜
43 金鍾洙	44 李連煥	45 丁漢玉	46 洪性厚	114 朴性弘	115 李基豪	116 吳在述	117 金基烈
47 朴景夏	48 姜海鎭	49 方七星	50 成珍煒	118 梁光錫	119 明魯亨	120 禹根赫	121 趙信行
51 金富三	52 林鍾善	53 李奉洙	54 李秦慶	122 李亨燮	123 金炯元	124 郭連圭	125 文承宇
55 池淳德	56 姜大顯	57 李文起	58 朴海榮	126 金張會	127 蔡允植	129 金永洙	130 權圭完
59 李廣元	60 金英基	61 嚴知榮	62 金德圭	131 崔興鍊	132 李貴永	133 崔承根	134 朴炳喆
63 金正仁	64 盧富貴	65 閔亨根	66 安永基	135 黃仁培			
67 金完會	68 李光炫	69 李文燦	70 柳奉浩				

【p. 59에서 계속】

교내외에서 한번도 사고가 없었다』고 한다.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태권도 정신으로 극복할 방침이며 학생들도 하루빨리 유단자의 실력을 갖는게 소원 이란다. 하지만 학교 재정이 여의치 않아 지금까지 사범의 보수를 못주고 11월부터는 학교의 성의를 표하리라 하며 이와같은 좋은 성격은 사범의 피나는 노고와 노력의 댓가라고 힘주어 말한다.

또한 교장선생님은 본인은 물론 교직원 전원이 태권도를 조만간에 수련할 계획이란다. 이 학교에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강 선장사범은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을* 졸업하고 43회 전국체전부터 지금까지 각종 대회를 우승했으며 해병대 대표선수 생활시는 대통령배를 5연패 시킨 선수의 한 사람으로 공격쌓은 검손과 과묵형이다. 자기는 조금도 한 일이 없는데 태권도지에 실리게 되어 미안하다고 검손해 한다. 그동안 좋은 조건과 생활의 보장이 되는 곳으로 옮기고 싶었지만 모든 후원을 아끼지 않는 교장선생님과 따르는 학생들을 물리칠 수 없었고 참된 태권도인, 국가가 필요로 하는 태권도인을 배출할 때까지 희생하겠단다. 금번 11월 9일에 실시했던 전국 중·고·대 선수권 대회에서 중등부 페터급에서 우승, 6명이 준준결승까지 진출한 것으로 보아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란 말도 있을성 싶다.

지금까지의 공적을 서로 미루는 강사범과 교장선생님의 인격자들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의 장래가 촉망스럽고 이 학교가 더욱 부러워진다.

강 선장사범의 피나는 숨은 노력과, 희생과 힘은 태권도인의 산 귀감이라고 할 수 있었다.

For Subscribers Abroad

「태권도」誌 購讀 希望者에게 알림

해외로 진출하여 태권도를 통해 음으로 양으로 국위를 선양하는 해외 사범 여러분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 동안 본 협회에서 발간하는 「태권도」지를 받아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사범 여러분들에게 송료까지를 본협회 부담으로 「태권도」지를 무료로 배부했었읍니다만, 신년도 부터는 *협회 방침에* 따라 구독을 희망하는 분에게만 배부하게 됐읍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본 협회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태권도 발전에 더욱 큰 기여있기를 바랍니다.

구독을 희망하는 분은 구독신청서를 작성 송료를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역별 송료는 다음과 같읍니다.

「태권도」지 지역별 송료

〈2월 1일 개정 요금〉

1 년분 송료 (4 회)

1 지역	720원	2 $
2 지역	920원	2 $ 70 ¢
3 지역	1,520원	4 $ 30 ¢
4 지역	2,120원	6 $

1 지역 : China, Hong Kong, Macao, Ryukyu, Japan.

2 지역 : Alaska, Burma, Cambodia, Guam, Laos, Malaysia, Vietnam, Philippines, Midway, Singapore, Thailand

3 지역 : Near East Asia, Pakistan, India (except the areas included in 1st, 2nd and 4 th zone) Canada, Hawaii, U.S.A. proper, Oceania

4 지역 : Europe, Central America, South America, West Indias, Middle East Asia (Iran, Iraq,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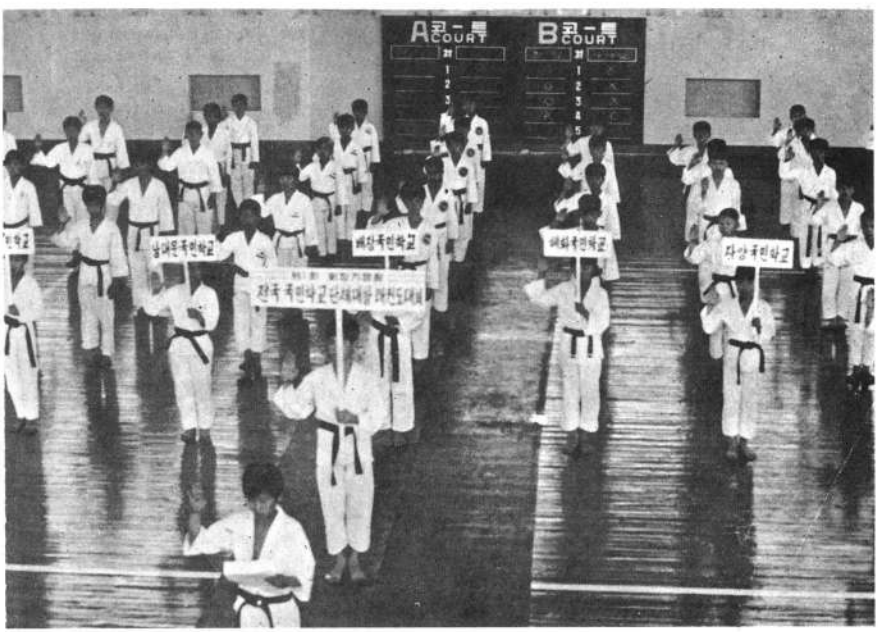
제 1 회 회장기 쟁탈
전국 국민학교 단체대항태권도 대회
The 1st Presidential Flag
Nation-wide Primary School Boys
Tae Kwon Do Team Competition

어린이의 태권도 수련 및 경기 참여로 태권도 범국민화에 박차를 가하는 제 1 회 회장기 쟁탈 전국 국민학교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가 지난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국기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회장기(右)와 참가팀의 선수선서 광경. (下)

The 1st Primary School Taekwondo team competition for the Flag presented by the Association President was held Kuk-Ki Won, in Seoul, Korea on October 27 ~ 28.

Shown at right is the Association President's Flag, Below, all participants are reciting athletes' oath.



제54회
전국체육대회

The 54th
National
Games,
Republic
of
Korea

제54회 전국체육대회가 지난10월 12일 부터 17일 까지 부산에서 열렸고 태권도부 경기는 데레사 여고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사진은 위로 부터 태권도 경기장 데레사여고 체육관, 시합광경, 그리고 제54회 체전에서 심판원으로 활약하는 부산 태권도협회 심판원들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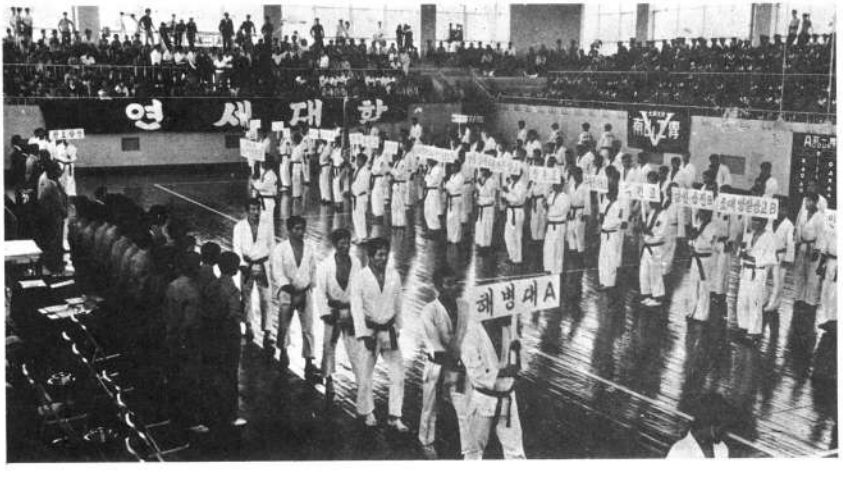
Taekwondo competitions of the 54th National Games were held at the gymnasium of Theresa Girls High School in Pu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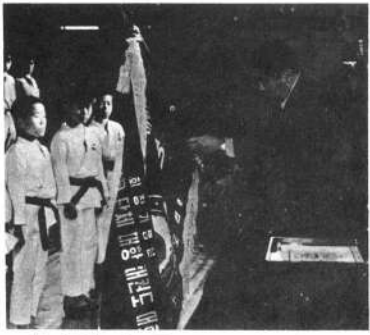
제 8 회 대통령하사기쟁탈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The 8th President Park's Flag National Tae Kwon Do Team championships

지난 9월 14일 부터 16일까지 국기원에서 열린 제 8 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의 시상식(右上), 시합(右下) 및 입장식광경(下). 이시합에서 육군 팀은 연장전까지 벌인 열전끝에 해병대 팀에 신승, 우승했다.

ROK Army A-team won the championship at the 8th President Park's Flag tourney held in Kuk-Ki-Won, Seoul on Sept. 14-16.





제 1 회 회장기 쟁탈 전국 국민학교 단체 대항 태권도대회 시상식 및 우승팀.

Awarding prizes at the 1st Presidential flag nation-wide primary school boys Taekwondo team competition (left)
Namdaemun primary school won the championship. (right)

제54회 전국 체육대회 태권도부 시상식및 우승팀.

Awarding prizes at the Taekwondo Tournament of 54th National Games Republic of Korea (left).
Seoul team won the championship. (right)

제 8 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전에서 격려사를 하는 김운용 태권도 협회장.
Association President, Un Yong Kim addressing an inspiring speach at the competitions of the 8th President Park's Flag Tourney.

제 8 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전에서 영예의 우승을 차지한 육군팀.
ROK Army team won the championship at the 8th President Park's Flag Tourney.

제 8 회 대통령 하사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개회식 광경

跆拳道 宗主國에의

각국 인사들 김운용

국기원에서 김운용 회장님을 예방, 환담하는 자유중국 육전대 사령관호엔팅 중장.

Courtesy call by Lt. General Ho En-ting, Chinese marine corps commandant.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장 보브 모레티씨가 김운용 회장으로 부터 명예 단증을 받고 있음. (上)

Mr. Bob Morretti the chairman of assembly house of the state Calif. recieves the honorable certificate by the President Un Yong Kim (above)

회장님 및 국회의원 장기영 씨와 환담하고 있는 보브 모레티의장. (左

Curtesy talks, Mr. Bob Morretti with Mr. Un Yong Kim and Mr. Chang, Ki Yong. (Left)

巡禮

회장님 예방

In Search of Korea, The Mecca of Tae Kwon Do

태권도의 종주국을 방문,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 겸 대한 태권도 협회 김운용 회장을 예방한 멕시코 태권도 협회 마누엘 몬드라곤 회장이 협회 임원과 함께 오찬을 즐기고 있다.

Mr. Manuel Mondragony, Kalb (middle) President of the Mexican Taekwondo Association, is treated to traditional Korean dishes by President Un Yong Kim (right) of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during his visit to Korea.

김운용 회장을 예방한 토고 공화국 보건장관 자랄로씨가 회장으로부터 기념품을 받고 있는 광경. (上)과 한국 태권도 시범단의 묘기에 박수 갈채를 보내고 있는 광경. (右)

Albert Djafalo Alidou, visiting Togo health social affairs Minister, recieves sourvenier by President, Un Yong Kim (above)

Watching demonstration (Right)

각 종 대 회 프 로 필

Profiles of all Competitions.

제 2 회 육군 참모총장기 쟁탈 태권도대회 시상식광경.

View of awarding prizes at the tourney of Flag for General in Chief-Staff of the ROK Army.

경찰 무도 대회 태권도부 시상식 광경.

View of awarding prizes at the tourney of martial arts for the National Police Forces.

제 8 회 전국 중, 고등 및 대학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개회식 광경.

Opening ceremoney of 8th Individual Championships for middle-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